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徐閔吉
印刷人 李揆行
主幹 金容喆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部長 金勝培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
서울시中區筆洞3街26
電話交換 ㉖8131~9
本社直通 ㉖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681
경북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 707
전화 경주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今週一言

생(生)도 사(死)도, 오직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미(迷)의 생사에 관계되는 마음이 멸(滅)하면, 미(迷)의 생사도 다한다。
〈佛敎聖典〉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의문많다"

지난3일 文科大·師範大 총회서 제기돼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이 학생들에 의해 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다.

지난 3일 문과대및 사범대 총회등에서 공식거론된 이문제는 등록금에 포함된 1인당 실험실습비1만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것으로 이과대나 공과대등 이과계통의 경우는 실습을통해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밝혀져 왔으나 문과계열의경우, 그 사용범위가 학술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제한되고 그 규제가애매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특히 사범대 5개학과의 경우 학생사용의 학생자치실습비용과 실제잔액의 통계가 맞지않아 이날 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또한 문과대 학생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장학금및 학회실문제와 더불어 거론되었는데 학교측은 이에대해 평교수로 구성된「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이라고만 밝히고 확실한 답변을 회피, 50여명의 학생들이 교수세미나실을 점거, 농성하기에까지 이르렀었다。

한편, 이날 사대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대학회연합의 이름으로 실험실습비 공개요구가 있은후 사대 각학과장들은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였으나 일부 학과의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문과대 학생회측은 이문제를 9일 발족할「동국발전촉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동국발전 촉진위원회 再建

9일 구성완료 非民主요소 제거 다짐

「동국발전촉진위원회」가 오늘 교내 대자보를 통해 조직구성완료를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동국80주년을 앞두고 본교발전 촉진활동을 위해 구성됐던 同위원회는 위원장인 강병용(당시 농경·4)군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와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존재해 오다 이번에 손실된 자료를 보완, 새로운 임원진으로 재출범하게 된것이다。

同위원회는 우선 대의원총회와 공동으로 代總에서 제기된 교내 장학금문제조사에 참여하는한편 문과대와 사범대농성에서 크게부각된 실험실습비, 교내 복지(식당·서점등) 문제등도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총학에서 상설기구로서그 역할을 맡게된 同위원회의 임원진은 이준흠(위원장·총학생회장권한대행), 민승현(대총의장), 이경수(문과대학생장), 양홍관(학연회장), 윤석원(학생복지위원장)군등 모두5명이다。

同위원회의 정식 발족대회는 아시안게임직후에 열릴예정으로 있는데 李준흠위원장은 발족대회연기이유를『동발촉위는 학내문제성격을 가지므로 경찰등의 외부압력을 받아서는 곤란하기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학은 오는10일부터 20일까지 도서관앞에서 민중의 삶을그린 각종자료 및 판화·노래테이프·카드·수첩등을 전시판매한다。

▲장학금 지급내역의 차액에관한 문제가 대의원총회에 의해 제기되었다。

政治學 심포지움

12일 학림관소강당서

제3회 정치학학술심포지움이 정치학연구회 주최로 오는12일 오후5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제3세계, 한국, 그 현실」이라는 주제아래「제3세계란 무엇인가?」「제3세계의 발전패러다임과 경제구조」「제3세계 정치와 군부」「제3세계와 한국의 현실」등의 학생논문이 발표된다。

DKBS 방송제

10일 文武館서 열려

慶州캠퍼스「제2회 D·K·B·S 방송제」가 오는 10日 오후4시부터 문무관(체육관)에서 열린다。

개교80주년을 기념해 교육방송을 통한 대학문화의 올바른 방향설을 정립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방송제에서는 취재의현장과 종합구성「불은 외진곳에서 타올랐읍니다」와 실험구성「脈」등 방송프로그램과 대학방송인 간담회가 열린다。

"大學自律 위해 최선"

金회장 밝혀 慶州 제3대총학 출범

慶州캠퍼스「제3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지난5일 오후1시 신구임원및 학생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야원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부총장격려사, 2대총학생회장의 이임사, 총학생회기 인계식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제3대 총학생회장 金完植(고미사·3)군은 취임사에서『진정한 동국의 발전과 민주쟁취를 위해 민족앞에 부끄럽지 않는 총학생회가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출범식은「대학의 자율과 사회민주화를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출범선언문 낭독에 이어「美國은 과연 우리의 우방인간」이라는 연제의 주제발표도 있었다。

제3대 총학 집행부 各부서장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장=김완식(고미사·3) ▲부총학생회장=부선호(국문·3) ▲총무부장=김문락(회계·3) ▲기획부장=임성택(국문·3) ▲홍보부장=오병훈(경영·3) ▲학술부장=김영수(법학·3) ▲사회부장=방휘철(무역·3) ▲문화부장=박영근(고미사·3) ▲체육부장=노태우(행정·3) ▲종교부장=최별진(한의본·1)

장학금 지급차액 추궁

代總 2학기 지급실태 조사키로

「9월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4일 오후5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릴예정이었으나 의사정족수미달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간담회 형식으로 강행된 이날 회의는 1학기 활동사항보고, 2학기 방향성천명, 장학금비리보고, 1학기 총학생회 예산사용보고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의제의주요쟁점이 된 장학금문제는 지난달 代總이 입수한 학교업부보고용 자료와 학교측에서 본지에 제공한 자료사이에 1억8천만원에상당하는 차액이 있다는 것으로 이에대해 代總측은 학교당국이 시종일관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날 장학금 지급내역의 차액을 명시한 代總자료에대해 대의원들은 이의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발표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서명록을 작성하기로 하는 한편 각학과·학년의 과대표들을 통한 금년도 2학기 장학금지급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獨文科 연극공연

이틀간 소극장서 열려

제2회 獨語獨文學科 연극공연이 오늘부터 이틀동안 본교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기숙 연출, 박상완 기획으로 Georg Buchner의「Leonce und Lena」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될 이번 공연에선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일문학작품을 번역극으로 보여줌으로써 메카니즘에 빠진 삶과 世上이 하나의 희극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해 주게된다。

영문타자 특강

여학생감실 주최로

영어타자특강이 여학생감실 주최로 오는 16일부터 12월 초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에 동국관(M505)에서 열린다。

본교 여학생의 취업진로와 교양을 위해 열리는 이번 특강의 접수는 오는15일까지 여학생감실에서 받는데, 수강료는 타자수리비와 교재비를 합쳐 5천원이다。

慶州代總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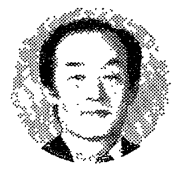
당면현안문제 논의

慶州캠퍼스 대의원회「86학년도 제2학기정기총회」가 오는11일오후5시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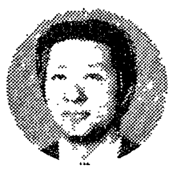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달 28일 새의장선출에 따른 중앙위원선출에이어 대의원총회의 자치적인 방향모색, 학내 제반문제점의등 당면대내외문제의 토론도 있게된다。

일부 보직교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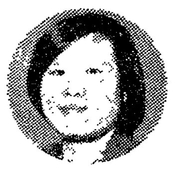
외국어교육원장 田浩鍾교수등



▲田浩鍾 신임 외국어교육원장



▲安思明 신임 전자계산소장



▲任敦姬 신임 여학생감

▲李璜雨신임 학술부장

학교당국은 새학기를 맞아 일부 보직교수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경질된 인사내용을 보면 지난달 20일자로 외국어교육원장에 田浩鍾(영문과)교수, 전자계산소장에 安思明 이부대학장(겸직), 학술부장에 李璜雨(경행과) 前행정대학원 학감, 여학생감에 任敦姬(사학과)교수, 행정대학원 학감에 鄭用吉(정외과)교수를 임명했다。

한편 지난1일에는 경영대학원 학감에 鄭龍根(회계학과)교수를 임명했다。

理科大학술지「學脈」

20일까지 원고모집

理科大학생회는 단대학술지「學脈」제2집 발간을위해 오는 20일까지 원고를 모집하고있다。

이과대인의 단합을 도모하고 학문적 열의의 고취를위해 발간될「學脈」의 모집분야는 자연과학·사회과학에 관한 논문, 전공에관한 논문및 시·소설·수필등이며 원고는 명진관 3층 이과대 학생회에서 받고있다。

모의 주주총회

10일 경영학과주최로

개교 80주년기념제13회모의주주총회가 경영학회주최로 오는10일 오후3시동국관(L301)에서열린다。

매년 경제및 경영이론에 대한 실제 적용능력과 실무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기위해 열려온 이 총회의 이번 상장회사는「백상자동차주식회사(가칭)」로서 삼성전자의 협찬을 받는다。

대학원 특강

주제「내가걸어온…」

대학원 특강이 오는16일 오후3時 대학원주최로 동국관(L101)에서 열린다。

본교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학문적 소양함양을 목적으로하는 이번특강은 在美학자들이 정면 박사(美유타大지리학교수)를초청,「내가걸어온 학문의길」이라는 주제로 열리게된다。

慶州 스탠드공사 완공돼

10일, 총 2천5백명 수용능력 갖춰

慶州캠퍼스 운동장 스탠드공사가 오는 10일 완공된다。

지난 7월 21일 시공, 7천8백4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이번 스탠드공사는 총길이 2백47m로 2천5백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illegible] 송시설을 포함, 탈의실, 화장실 [illegible] 으로써 각종 [illegible] 및 운동장행사 [illegible]

보리수

잊혀진 美德

세상에는 여러가지 미덕이 있다。조건없는 베풂, 희생, 자비, 이해와 용서 등등 [illegible] 고귀한 인간성의 발로라 할 [illegible] 운 미덕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주 행하는일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이른바 특별히 미덕이란 말로 일컬어짐은 세상에 흔히있는 일은 아니기때문일 것이다。

탐욕이 고삐가 풀린 현대사회는 참으로 이러한미덕이 돋보이게 되는사회이다。탐욕과 미덕은 반비례하는 만큼 탐욕이성할수록 미덕은 줄어드는까닭이다。

이중에서도 참고 견디는 미덕은 더욱 귀하게 여겨진다。

스피드 시대 운운하면서, 오직「쉽고 편하고 빠른 것」만이 제일인 세상이 되어서 참고 견딘다는 것이 잊혀진 미덕이 된지 오래이다。그러나 탐욕은 한낱 단맛의 추구일 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파멸은 물론 타인에게도 [illegible] 이를 싫어해서 한시라도 빨리 이를 벗어나려 애쓴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은 맛은 쓰나 몸에는 이로운 좋은 약과 같아서 인간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되기도 한다。

아주 뜨거운 불에 자주 쇠를 담그고 두들겨서 불순물을 떨어내고 쇠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역경과 고난도 사람을 정화시키고 단련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이왕에 처한 역경과 고난을 거북한 장애로 여겨 괴롭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옛 사람도『하늘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그사람을 역경에 처하게 해서 그마음을 한없이 괴롭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illegible] 것을 불교에서는 [illegible] 하여, 불교인의 두번째 [illegible] 로서 특별히 강조한다。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것 [illegible] 난행고행을 인욕하신 때문이요, 개인의 인격을 성숙시킴에 있어서나 세상사를 도모함에 있어서도 인욕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역경과 고난이 오면 이것과 친하여 고맙게 여기라고까지 하셨다。

「쉽고 편하고 빠른 것」에만 빠져 있는 우리들 현대인이여, 다음의 부처님 말씀에도 한번귀를 울이리자。

『인간은 작은 것을 참아야큰 일을 하고, 험한 것을 참아야평탄한 데가 오고, 어려움을 참아야 쉬운 것이 있고, 괴로움을참아야 즐거움이 있고, 실패를 참아야 성공을 하고, 욕되는것을참아야 영광을 받고, 범부의 일을 참아야 성인의 일을 하는 것이다』

李載昌

여기 어둠을 사르는 直筆의 길이…

11일 本社 修習記者 원서접수 마감

시험장소; 학림관 J 102

교수동정

▲郭根교수(문리대·국문과)=지난달 25일 성균관대학 대학원에서「兪鎭午와 李孝石의 前期小說研究」란 논문으로文學박사학위취득。

▲任奎訓(한의과)교수=지난달30일 경희대 한의과학원에서「數種의 韓藥物 癌細胞 感受性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으로藥學박사학위취득。

알림

이번號부터「써클소식」란 7面에 신설됩니다。

社告

第24回 本社學術賞 原稿募集

本校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 매해 알찬 수확을 거둬온 本社學術賞이 올해로 24회의 연륜을 쌓게 되었읍니다。傳統과 權威에 빛나는 本 學術賞에 동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원고마감 10월31일까지

募集分野

▲人文科學賞
▲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應募要領

▲원고매수=人文·社會·自然科學 3개 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枚 내외로 지도교수의 추천및 소속학과 학술 논문이어야함
▲응모자격=本校및 경주캠퍼스 재학생에 限함
▲심사위원=本社에서 위촉하며 당선작발표와 함께 밝힘
▲시상=상장및 상금(분야별 本賞 20만원, 가작 10만원)
▲작품제출기간=10월31일까지 本社에서 접수
▲당선작발표=11월11일 本紙 紙上

1986년 9월 일

東大新聞社

社告

全國 大學生 대상

제1회 東大文學賞 원고 모집

개교80주년을 맞아 本社에서는 東國의 문학적 傳統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韓國文壇을 主導해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東大文學賞」을 제정하였읍니다。本「東大文學賞」이 이땅의 精神文化를 주도해갈 가장 권위있는 大學文人의 등용문으로 정착할것을 기대하며 문학에 뜻을 둔 知性人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분야

▲詩…5篇 이상
▲小說…60枚 내외
▲評論…60枚 내외

◇응모요령

▲응모자격 : 全國 4년제대학 在學生
▲작품제출기간 : 1986년9월20일限
▲시상 : 상장및 상금(本賞1篇30만원, 장려상3篇각10만원)
▲심사위원 : 本社에서 위촉하며 당선작 발표와 함께 공고
▲당선작 발표 : 1986년10월14일字본지紙上
▲작품 제출처 : 서울 중구 필동3가26번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작품겉봉에「東大文學賞」응모작이라 朱書해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반환하지않읍니다。

東大新聞社

東國大學校 開校80周年紀念

제1회 佛經讀後感모집

1. 취지 : 인류가 지닌 최고의 고전인 불교경전 읽기를 권장함으로써 개인의 심전을 갈고 닦는 일을 도우며, 그 인격도야의 바탕위에 평등하고 평화로운 국가·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이바지하고자함。
2. 대상 : ①일반인 ②대학생 ③고등학생
3. 내용 : 불교경전 中 택일
※참고—고등학교 재학생은 동국역경사업진흥회에서 전국고등학교 도서실 비치용으로 무상배포한 역경원간행의「불교성전」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독후감은 성전전체, 혹은 그 내용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여도 무방함。
4. 원고의분량 : ①일반및 대학생 200자 원고지 20장
②고등학생 200자 원고지 15장
5. 당선작및 고료 : 당선작은 다음과같이 선발하되 작품의 수준에 따라서 증감할수 있으며 상패와함께 다음의 고료를 지급함
①최우수작…1편, 고료 300,000원정
②우수작…㉮일반부및 대학부 각1편, 고료 200,000원정
㉯고등부 1편, 고료 150,000원정。
③가작 각부별3편, 고료 각 100,000원정
④입선작 전체 100편, 상품증정
※당선작은 불교신문에 게재함
6. 제출마감 : 1986년11월10일까지(단, 당일 우체국소인 유효)
7. 제출처 :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6번지 동국대학교 역경원(우편번호100)
8. 당선작발표 : 1986년11월29일 불교신문 및 본대학교 발행 동대신문지상에 발표하며 동시에 개별통지함
9. 심사위원 : 사계권위자를 위촉하며 당선작과 함께 공표함
10. 시상일시및장소 : 1986년12월6일(토요일) 동국대학교 역경원
11. 기타 : ①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주최측이 임의로 활용할수 있음
②원고는 반드시 200자원고지에 써야하며 겉봉에「독후감 응모작」이라고 주서할것
③대학생및 고등학생은 재학증명, 또는 학생증 사본을 동봉할것
④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직통 267—8578, 교환 267—8131~9, 267—8141~5 동국대학교역경원으로 문의할것

1986년 9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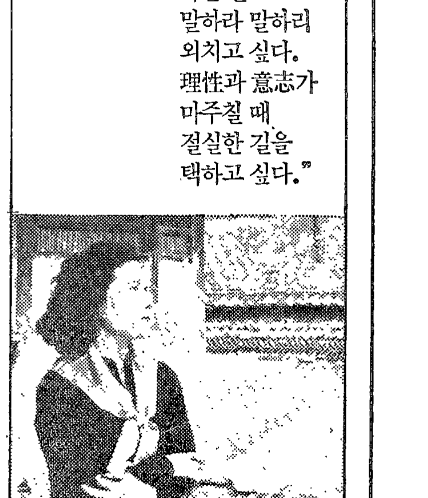
主催 : 東國大學校譯經院
財團法人 東國譯經事業振興會

柳岸津
代表에세이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은

詩人 柳岸津 敎授가 고뇌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절박한 現代人은 속을 풀고 말하라 말하리 외치고 싶다. 理性과 意志가 마주칠 때 절실한 길을 택하고 싶다."



現代文學 에세이選

사설

스포츠文化의 反省

주지하는 바와같이 제10회 아시안게임이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될 날이 박두하고 있다. 힘과 기량, 젊음의 열기, 아름다움 등으로 表象되는 大祭典이니만큼 有終의 美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우리는 주최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外國손님에게 친절한 대우와 청결한 환경, 그리고 완벽한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文化國民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이를 계기로 國威를 널리 선양해줄 것도 당부하고자 한다.

다만, 차제에 言及하고자하는 것은 비단 이번의 아시안게임만을 전제로 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스포츠文化 전반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냉철한 批判이 국민적 次元에서 있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흔히 體力은 國力이라는 말도 있고, 스포츠外交가 政治 經濟 文化 外交 못지않게 지구촌의 큰 比重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스포츠는 現代人의 건강과 스트레스해소등에도 크게 기여하고 경기의 승패가 현대인의 승부욕을 자극시켜 때로는 대중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魔力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의 영웅은 유명스포츠맨이라고 해도 좋을정도로 스포츠 전문紙·誌에는 물론 日刊紙에까지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스포츠가 현대인에게 얼마나 매혹적이고 절대적인 人氣를 독점하고 있는가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86·88 두 행사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우리나라에도 프로야구와 축구가 등장한지 오래고 지난 LA올림픽에서는 메달획득 서열로 세계 10위에 오를만큼 우리가 스포츠 强國이 된 것도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스포츠 열기내지는 스포츠 만능의 사회현상이 반드시 우리나라 제반실정으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풍조인가 하는 反問이다.

분단의 비운을 벗지못하고 아직 開途國인 우리나라가 國力을 집결하다시피하여 동양에서 두번째로 올림픽을 치르고 가령 그 성적이 다시 세계 10위권안에 든다면 그것이 곧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두번째로 잘살고 세계에서 10번째 强國이 되는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굳이 本欄에서 기왕 국가차원으로 유치, 개최키로한 두 大會의 無用論을 펴자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련의 스포츠 過熱, 스포츠바람에 따른 많은 국민의 정신적 황폐내지는 무분별한 스포츠選好에대한 심각한 우려이다.

솔직히 우리의 하루생활 가운데 매스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며, 그 매스컴가운데 스포츠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큰가를 냉철히 검토해보자. T·V에서는 연일 프로야구를 위시하여 축구·농구·권투·씨름등 인기스포츠를 계속 방영하고 있으며 그 시청율 또한 다른 어느프로보다 압도적임에 틀림없다.

생각하지 않는 국민, 비판할 줄모르는 국민, 책을 외면하는 국민이 과연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저 쉽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만을 골라 맹종하는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바보가 돼가고 있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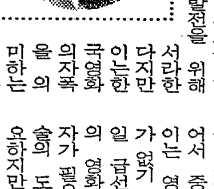
진부한 인용이지만 현대를 3S시대라 한다는데 우리나라에도 스포츠·섹스·스피드(마이카)붐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다면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知的수준과 정신적·도덕적 차원은 갈수록 마비되고 황폐해질것은 뻔한 노릇이 아닌가.

동양제일의 무슨 體育館이나 무슨 경기장을 가진것도 자랑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동양제일의 도서관이나 과학관 그리고 각종 연구소를 가진 것은 더 큰 자랑이될 수 있을 것이다.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시련에 부대낄 때일수록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과 人生觀을가지고 늘 깨어있는 知性人이 돼야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흥분과 낭비를 지양하고 외연하고 슬기롭게 이번의 아시안게임을 치뤄줄것을 당부하면서 苦言의一端을 적어본 것이다.

外畵수입 자유화

서병록 <文科大교수·영화이론>



1960년 5·16이후 영화제작업자들의 통폐합으로 만들어졌던 영화법은 한국영화의 자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이는 한국영화 3편을 의무적으로 제작하면 외국영화 1편을 수입할수 있었던 이러한 영화법은 영화의 검열을 강화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영화제작자들은예술성이 있는 영화들은 외면해버리고 오직 패락적이고 폭력적이며, 오락위주의 영화만을 수입해서 자기들의배만 살찌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일반영화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문화적의식은 마비되어 버렸고, 서양의 이질문화와의 마찰속에서 우리문화를 망각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압력으로 외국영화 수입업자들이 자유화됨에 따라 영화수입업자들이 늘어났고, 너나 할것없이 외국을 전전긍긍하면서 오락위주의 흥행성이 높은 영화만을 수입하기 위해서 외국의 영화업자들에게 경쟁적으로 돈을 더주겠다고 하니, 그들은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론 멸시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러한 영화법의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의도는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한다지만 이는한국영화의자폭을 의미하는 것일뿐이다.

아무리 좋은 영화법을 개정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영화업자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영화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영화인 스스로 문제점을 연구·검토해서 영화인 스스로 해결해야 새로운 길이 트일 것이다. 수입의 자유화는 당분간 혼미속으로 빠져들어가 많은 업자들이 스스로 소멸해 갈것이고, 자연스럽게 재정비되리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영화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인 발전이 없이는 영화의 발전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이 제일 급선무이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영화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의 도입과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영화인의 육성이 절대적인 것이다. 새로운 감각의 새로운 영상이 표현되려면 영화의 연구와 많은 제작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서는 국립영화학교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을때 우리들의 영화가 세계속으로 파고들어가 한국의 이미지를 고취시킬 것이다.

"漢四郡-한반도에 없었다"

古代史속에 樂浪의 實體

韓國史전반의 植民史觀 극복이 과제

遼東·遼西說, 기존 通說과 同一비중으로 등장

○… 國史에 대한 再認識이 필요하다는…○
○…흐름속에 漢四郡의 위치에 관해 韓…○
○…半島北部說과 遼東·遼西說이 대립하…○
○…고 있다. 요동 요서설의 입장에 선…○
○…이 논문은 지난5월 史友會 학술세미나…○
○…에서 발표된 것으로 紙面관계상 많…○
○…은 요약과 생략이 있었음을 밝혀둔…○
○…다. <편집자註>…○

정재남 <법정대 법학과>

I、導言

1983년에 문교부와 國史編纂委員會가 펴낸 고등학교용 國史교과서 상권을 보면、韓國古代史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인 漢四郡의 위치에 관하여 지금까지 通說的인 견해만을 일방적으로 說明하던것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2面 하단의 脚注)

「한이 고조선지역에 설치하였다는 4군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만주와 한반도북부설과 요동·요서설이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새 국사교과서는 한국고대사의 인식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樂浪郡과 玄菟郡、眞番郡、臨屯郡등 漢四郡의 疆域的 위치를 서술함에 있어 종래의 평양중심의 한반도북부위치설과 함께、그 위치를 한반도와는 관계없이 오히려 중국의 화북지방에 가까운 요동·요서지역으로 보는 이른바「遼東·遼西說」을 동일한 비중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史學界를 대표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遼東·遼西說을 국가가 펴낸 교과서에 기존통설과 함께 채택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은、국정교과서가 갖는 정책적인 배려의 성질을 감안하더라도 요동·요서설이 그 자체로서 지닌 學術的 성과와 說得力이 기존통설에 못지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사군의 위치에 관한 학설의 대립은 日帝時代 民族主義史學과 植民史學의 대결에서부터 本格化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8·15해방이후 지금까지도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論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문제에 관하여 보다 균형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소개가 덜된 遼東·遼西說, 특히 최근의 遼西說에 관하여 漢四郡중 가장 중요한 樂浪郡의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遼西地域의 樂浪郡

지금까지의 통설은 대개 한사군 위치를 韓半島北部 및 滿州의 일부지역으로 비정하고 그 중심지를 오늘날의 平壤地域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중심지를 평양지역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한사군중 樂浪郡의 위치를 평양지역으로 인식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낙랑군의 위치에 관한 인식이 바뀔경우 한사군의 위치가 모두 변경됨을 의미한다.

樂浪郡의 위치를 찾기위하여 한사군 설치초기의 지리를 기록한「漢書」지리지를 보면 낙랑군에는 모두 25개의 縣이 있음을 알수 있다. 그 25개의 縣가운데 어느 하나의 현이라도 분명하게 오늘날의 위치를 확인할수 있다면 그곳을 포괄하는 주변지역이 곧 낙랑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낙랑군의 25개의 현가운데 遂城縣과 朝鮮縣의 위치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수성현의 위치에 관하여「史記」의 夏本記에는 樂浪郡이 존재하던 당시인 AD 283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太康地理志」를 인용하여「낙랑군의 수성현에는 갈석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萬里長城이 시작되는 곳이다」(필자註、樂浪遂城縣 有碣石山 長城所起)」라고 기록하였다.

또한「晉書」地理志에서도 수성현에 대하여 그곳에서 秦帝國의 長城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진제국의 장성이 시작된 곳은 전국시대 燕나라 장성의 끝인 襄平과 같은데「魏書」地形志는 양평의 위치가 前漢·後漢·晉시대까지 불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곧 양평의위치를 찾으면 수성현의 위치를 알수있다.

이에 관하여「後漢書」袁紹劉表列傳에는 襄平이 당시의 平州 盧龍縣 西南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지역은 오늘날 遼西地域의 난하 하류부근으로서 갈석산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이로서 遂城縣이 요서지역에 있었음을 알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漢書」賈捐傳에서 漢四郡을 설치한 漢武帝의 업적을 말하면서「동쪽으로 갈석을 지나 玄菟와 樂浪으로써 郡을 삼았다」(東過碣石 以玄菟樂浪爲郡)라고 기록한 표현은 정확한 것이 된다. 만약 樂浪郡이 平壤地域에 설치되었다면 數千理 떨어진 갈석산을 기점으로 하여 설명한다는 것이 큰 무리라고 하겠다.

또한 朝鮮縣의 위치도 확인되고 있다.

「史記」조선열전의 주석인「集解」의 기록에는 AD 3C경의 사람인 張晏의 말을 인용하여 樂浪郡의 朝鮮縣지역에는 濕水·洌水·汕水라는 명칭의 세 지류를 가진 洌水라는 江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魏書」지형지는 조선현의 위치가 前漢시대부터 後漢·三國時代를 거쳐 晉시대까지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위에서 말한 조선현의 위치에 대한 張晏의 말은 樂浪郡 設置당시의 위치와 같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濕水·洌水·汕水의 세지류가 있는강을 중국의 동북부지역으로부터 한반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찾아낸다면 그곳이 곧 조선현이 있었던 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古代의 中國과 그 주변의 하천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전하는「水經注」를 보면 이러한 세가지 명칭을 가진 지류가 있는 강은 유수뿐이다. 즉 유수에는 濕餘水(濕水)、武列水(列水、洌水)、龍鮮水(鮮水 일명 汕水)의 지류가 있다.

그런데 이 유수는 오늘날 遼西地域의 난하의 옛명칭이므로 결국 朝鮮縣의 위치 역시 난하부근이었음을 알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樂浪郡의 25개縣 가운데 각기 살펴본 遂城縣과 朝鮮縣의 위치가 오늘날 요서지역의 난하부근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2개의 縣을 포괄하는 낙랑군의 위치는 위치상으로 韓半島의 平壤지역이 아닌 遼西지역의 난하부근으로 보아야 옳다고 할수있다.

▲최근의 요서설에서 낙랑의 25개縣중 조선현과수성현의 위치가 요서지역의 난하유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III、세개의 樂浪

앞에서 樂浪郡의 위치가 오늘날의 요서지역임을 확인하였는데 한편으로 樂浪關係文獻記錄을 살펴보면 韓半島의 평양지역에도 같은「樂浪」이란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三國史記 新羅·百濟本紀의 초기기록에는「樂浪이 新羅의 北邊을 침범하였다」라는 기사를 비롯하여 이들 국가와 이른바「樂浪」사이에 충돌및 접촉사실이 다수 보이는데, 高句麗本紀에는 大武神王15年條에 낙랑의 왕인 崔理가 고구려의 好童王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구려를 북방에있는 나라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낙랑」의 위치는 고구려의 남쪽과 백제·신라의 쪽으로서 대개 한반도의 중북부지방으로 보여지며 이는 곧 요서지역에 위치하는 낙랑군과는 구별되는 다른 實體임을 알수있고、더우기 太守가 아닌 왕이라는 통치자가 있음을 볼때 한층 명백해진다.

이 崔理의 樂浪王國은 A·D37년에 고구려에 의하여 멸망하였다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적혀있다. 신라본기는 이 사실에대해「고구려도 무휼(大武神王)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키자 그나라사람 5천명이 투항하여오므로 여섯부락에 나누어 살게하였다 (高句麗王無恤 襲樂浪滅之 其國人五千人來投 分居六部)」라고 기록하였다.

이어 崔理의 樂浪王國이 멸망된지 7년후인 A·D44년에 그 지역은 後漢의 침략을 받아 빼앗긴 것으로 고구려본기에 나타난다.

즉「후한의 光武帝가 병사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樂浪지역을 정벌하고 그 땅을 取하여 漢의 郡縣으로 만드니 이에 薩水(지금의 청천강)이 남이 漢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종래에는 이 기록을 漢四郡의 樂浪郡과 연결시켜 해석하려 하였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미 자기들의 한사군의 낙랑군을 다시 정벌하고 그 땅을 취하여 郡縣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되므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것은 바다를 건넜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의 평양지역을 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後漢 光武帝가 설치한 평양지역의「樂浪」은그 뒤 계속 존속하다가 A·D300년경에고구려에게 속하게 된 것으로보인다. 新羅本紀에는 A·D300년에 낙랑이 신라에 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이는 고구려본기에 들어갈 誤記인것같다. 이것은 A·D302년에 고구려 미천왕이 병사 3만을 이끌고 현도군을 쳐서 포로 8천명을 붙잡아 평양지역에 옮겼다는 고구려본기의 기록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A·D302년경에는 漢人포로를 대규모로 옮겨놓을 수 있을 만큼 고구려가 평양지역을 확고하게 차지하였다고 할수있다.

한편 平壤지역의「樂浪」이 멸망한 후 고구려는 계속해서 遼西방향으로 공격을 진행시키는데 AD313년의「樂浪郡을 쳐서 남녀2천명을 사로잡았다」고 한 三國史記의 기록은 평양지역의「樂浪」과는 다른 또 하나의 낙랑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해주며 아울러 이 樂浪郡이 곧 遼西地域에 설치되었던 漢四郡의 樂浪郡임을 알수있다.

IV、結論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漢四郡의 하나인 樂浪郡의 위치는 평양지역이 아닌 遼西地域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평양지역도「樂浪」이 있었으나 이는 崔理라는 王이 다스리는、다른「樂浪」으로서 AD37년에 고구려에 멸망당하여 일찍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後漢의 光武帝는 A·D44년에 오늘날의청천강이남지역을 차지해 제3의「樂浪」을 設置하였고 이 낙랑은 A·D300년경에 고구려에 속하게된 것으로보인다.

이로써 韓國古代史에 등장하는「樂浪」은 모두 세개임을알수 있다. 三國史記의 기록에는 樂浪이 A·D37년、300년、그리고 313년에 걸쳐 세번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기록의 착오로 보기에는 너무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이와같이 상호 모순되는 史料들을 종래처럼 하나의 樂浪이 아닌 세개의 樂浪으로 分類、解釋함으로써 漢四郡문제에관한 전체적인 인식에 體系性과 合理性을 가질수있다.

그러나 漢四郡위치의 考證문제는 지금까지 쉽사리 결론을 내릴수 없었던 복잡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종래의 통설인 平壤지역중심설을 부정하고 遼東·遼西說이 보다 완벽한 정설이 되기위해서는 앞으로 더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것이다.

아울러 해방이후 국사학계의 끈질긴 식민사관논쟁과 최근 日本의 역사왜곡사건등을 겪으며「國史」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漢四郡의 위치에 대한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단순히 몇개 군현의 강역에 관한 논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고대사의 전면적인 재인식과 깊이 관련되며 나아가 한국사전반에 걸친 植民史觀克服運動의 일환으로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문제인 것이다.

울로 느끼는 마음의 여유
Feel more rich with wool

입는 멋―한복

한복은 겉치레와 체면을 중요시한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 여유와 선비정신 그리고 온돌 생활의 산물로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저고리에 마고자를 덧 입고 대님을 꼭꼭 매며 두루마기까지 입어야 하는 복잡한 착용법은 한복의 또 다른 의미를 말해준다.
만든 분의 손길 하나하나를, 입는분이 다시 매만지면서 그 정성과 사랑을 확인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한복에는, 입는 과정을 만드는 애정만큼 중시하고, 입고 나서는 자긍심과 멋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한 복식 철학이 담겨있다.
패션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기본패턴을 고집하게 한 내면의 풍류가 넘쳐 흐른다.

보는 멋―양복

양복을 입는 사람의 관심은 우선 패션이요, 개성이다. 시간·장소·유행에 따라 착용의 세련미를 과시한다.
활동성이 요구되는 스피디한 생활 리듬과 자신의 미적 감각을 주장하려는 표현욕구가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내는 멋이 있다.
"패션은 예술이요, 착용법은 기술이다."를 몸소 실천하고, 세련된 센스와 격조를 생명으로 여긴다.
다양한 디자인과 국제적인 감각을 살려 자신을 연출하고,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기품으로, 보는 사람의 찬사를 받는다.
실로 복지를 재단하여 세계인의 옷으로 보편화시킨 양복의 힘은 주목할 만하다.

겉모습은 달라도 멋은 한가지

한복이나 양복이나 결국은 멋지게 보이고자 한 인간심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다만 액센트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가 두 갈래를 만들었을 따름이다.

제일모직은 한복과 양복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복지들을 사회적·문화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더욱 완벽한 복지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새로운 의상철학을 정립해 나가고 있읍니다.

최고의 품질
골덴텍스
第一毛織

신문의 수준은 언론인이 아닌 독자가 결정

독점재벌 입김이 신문의 상업주의 부채질

대중신문의 정치수단화

편집자의 主觀이 言論을 좌우해서는 안돼

時論

金 景 根
<高大·정경대교수>

사회가 변함에 따라 언론도 변하고 언론이 변함에 따라 사회도 변하며, 나아가서 인간도 변한다. 사회와 언론과 인간은 항상 상호 연관적이고 변증법적 관계속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인간사회의 주변환경은 물질분야 못지 않게 정신분야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특히 언론의 변화는 가장 특기할 만한 현상이다. 여러 형태의 언론매체가 각기 나름대로 기술과 내용면에서 특색있는 변화를 이룩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문매체의 질적 변화는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신문의 선정성, 즉 센세이셔날 저널리즘 (Sensational Journalism)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정적 신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며 우리만이 겪는 문제도 아니다. 신문의 저속성과 선정성은 근대적 신문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한 17세기 초엽부터 시작하여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대상이 될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세속적이고 저속하고 선정적인 신문의 보도내용이 인간의 정신과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명확한해답을 얻은 상태가 아니며 아마도 영원한 숙제거리로 남을 것이다.

선정적 신문은 상업주의와 대중사회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시대적 부산물이며 주로 상업주의의 언론제도 속에서 성장하였다.

가능한한 많은 독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 흥미있고 자극적인 내용을 과장되게 보도함으로써 판매부수를 늘리고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선정적 신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선정적 신문을 단순히 신문경영적 측면에서만 논의할수 없을 정도로 관련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대부분의 식자층은 선정적 신문이라면 우선 무시하거나 부정적 관점에서만 평가하려 한다. 신문이라면 의례히 정치·경제·문화등 무게있는 문제점들을 어렵게 보도하는 권위지를 주로 연상하고 신문에 대한 평가기준은 그러한 권위지에서 찾으려한다. 이는 어디 까지나 자신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위치에 맞추어 판단하는 편견적이고 위선적인 자세이다.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덕망과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권위지와 선정지를 눈앞에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주위에는 그를 의식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경우 그는 의례히 선정지에 먼저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데, 바로 이러한 행위는 가장 인간적이며 본능적 의식의 표현인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과 오락을 추구하게되고 직접적 쾌락대신 간접적 쾌락을 추구하려고할 경우 선정적이고 오락적 언론매체를 우선 선호하려한다.

신문의 수준은 전달자인 언론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인국민이 정한다는 이론이 매우 타당하게 들린다. 신문이 수준높은 내용을 아무리 정성껏 전달하려해도 독자의 교육수준과 이해능력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신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을 하는 인간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기 원한다. 그리고 적절한 정신적 휴식과 위안을 받기 원한다. 만일 정당한 대가를 보상 받았거나 만족할만한 휴식과 위안을 받았다면 모르되 그렇지 못할 경우 대중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리보상내지는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때 주로 선정적·오락적·쾌락적 내용에 접하게 된다.

아무도 이러한 인간적 행위를 탓할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쾌락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추구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다.

그리고 언론정책적인 차원에서 볼때 인간의 쾌락추구적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올바로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 인간의 본능적 쾌락추구욕구는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폭발할지도 모른다. 이 세상은 성현군자들만 사는 곳도 아니며 그들만을 위하여 신문이 존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볼때 선정적 신문 혹은 오락적신문은 그 존재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며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수단이자 정보전달 수단임에 틀림없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고 문제시 하는것은 이러한 신문을 이용하여 인간을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조작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독재국가와 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비정상적인 목적에 남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집권자는 국민이 유식해 지기를 결코 원치 않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능력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살해 버리려한다. 집권자가 바라는 국민의 의식상태란 정치상황에대한 객관적 판단이나 의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취된듯한 상태인것이다.

독재정치에서 파생되는 온갖부정과 불의와 비인간화등의 심각한문제점들을 은폐시키고 국민이 의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는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에서는 언론을 조정하고 탄압하는 일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다.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당장 심각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간접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을 활용하려는 것이 집권자의 언론정책이다.

요컨데 국민을 바보스럽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드는데에 언론을활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언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 맞게끔 조정된 내용을 그것도 선정적이고 쾌락적으로 확대하고 조작하려는 것이 집권자의 현대적 언론정책이다.

전파매체는 원래 오락적 속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처음부터 의식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오늘날 신문 까지도 국민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독재를 합리화 시키고 수단화 하려는 정치적 계략은 단호히 경계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산업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선정적 신문의 수요와 필요성이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정치적 압력까지 작용하여 일반화 된다면 우리의 언론상황은 온통 선정과 쾌락과 오락으로 채워진 매체들로 뒤덮힐 것이다.

독점자본가도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즉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제품을 광고할때 소비자는 별다른 의식이나 판단기준 없이 제품을 소비만 하면 되기를 바란다.

제품가격이 왜 비싼지, 독과점 생산체제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독점재벌과 정권이 유착됨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파생 되는 부정적 효과는 얼마나 큰지등을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오직 독점재벌들의 단순소비자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건전한 사회위해 봉사하는 대중지 필요한 때

독점재벌들은 언론매체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언론에 절대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영향권안에 있는 언론일수록 상업주의 색체를 띠게 되며 따라서 오락적 내용을 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현실적 문제는 환상적이고 가공적 세계로 유도되며 인간적 가치기준과 삶의 목적은 돈과 소비와 쾌락에서 찾게끔 언론을 통하여 선정적으로 조작된다.

이렇게 볼때 오늘날 선정적 신문은 그 본래의 발생동기와 기능면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신문에 있어서 선정의 의미는 처음부터 부정적이 아니었고 인간의 쾌락추구 원리에 맞추어 전달내용을 흥미있고 알기쉽고 약간 과장되게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선의의 의미로긍정적 이었다. 인간 역시 이런것을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집권자의 권력행사를 무마시키고 독점재벌들의 영리추구를 가능케하는 수단으로 선정적 신문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선정적 신문, 정확히 표현하여 대중오락적 신문, 혹은 대중신문은 복합사회에서 등장하고 존재하며 변하고 발전하는 각 분야의 정보와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알기쉽게 이해시키며 긴장을 풀어주고 적절한 정신적 오락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생활의 동반자인 것이다.

선정적 신문과 말초적 본능을자극하는 통속적이고 저속한 신문과는 구별을 하여야겠고 신문에 있어서 선정의 개념은 오락이 가미된 정보전달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겠다.

부당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남용됨이 없이, 그리고 대중의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회화를 위하여순수하게 봉사하는 대중오락지를 우리 모두는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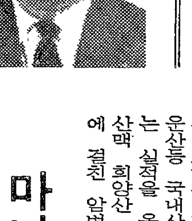
동국80년의 뒤안길 〈7〉

山岳활동

마나슬루 登頂 감격 아직도 못잊어

등산대회·山岳祭등 거교적 행사도

『東大에는 왜 산악부가 없느냐』는 질문에 책임감을 느껴 58년4월에 山岳部를 창단케 되었다. 사진은 당시의 창단멤버들로 왼쪽부터 金鍾燮 崔榮植 한사람건너 林燉 權榮時 金榮根 鄭鎭永。



崔 榮 植 동문
〈59 경제과졸·山岳人〉

1956년과 1957년은 한국산악회와 각대학 산악부활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그당시 대학으로는 서울문리대와 工大·醫大, 高大, 漢大등에서 산악활동이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교는 이때까지도 山岳활동이 여의치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날 한국산악회원인 나에게 洪鍾仁회장이 『왜 東大에는 산악부가 없느냐』고 물어왔으나 달리 대답할 길이 없었다. 이에 책임을 느껴 당시 교무과에 근무하고 있었던 林燉(在美)선생과 상의 끝에 마침내 58년 4월 본교산악부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때고문에 林燉, 초대회장은 내가 맡았고 부원은 25명이었다. 그뒤 全奎弘부총장을 정식고문으로 추대하면서 본교산악부는 활기를 띠었다.

본교山岳部는 여름방학때 첫나들이로 설악산을 등반했고, 대학산악부 최초로 「등반사진전시회」를 연것은 획기적이였다.

이 사진전을 보려온 고교산악부원들이 몇년뒤 본교 산악부에 들어온 숫자도 적지 않았다. 출범 1년뒤인 59년1월에는 나를 비롯 金鍾燮 劉昌瑞등이 동계 千佛洞계곡등반에나섰으며, 또 조잡한 전장비로 內설악까지 넘었으니 우리 산악부원들의 열의도 보통은 아니었다.

이러한 열의는 우선 설악산을 36회, 지리산9회, 한라산7회, 태백산 종주3회와 오가야산, 오대산, 화악산, 속리산, 백운산등 국내산들을 두루등반하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소백산맥 희양산 암벽에서는 17차에 걸친 암벽등반기술훈련으로 많은 岩場코스를 개척, 東大山岳人의 전용 훈련장소로 불릴정도이다. 그리고 76년1월의 토왕성폭포 下部를 初登한 쾌거는 山誌에 길이남고 있다.

본교산악부는 국내등반뿐만아니라 해외등반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한것이 또한 자랑스럽다.

1964년5월 他大에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때 제1차 日本北알프스 등반대를 파견함으로써 大學山岳部들의 해외등반길을 열었다. 이때 단장에는 閔完植교수, 대원에는 나를 비롯 李重雄 林信喆 柳志英 李奎福등이었다.

2년뒤인 1967년에는 제2차 日本北알프스 등반을 해냈는데 정종교수를 비롯 반태중 강성윤 윤용규 최인 이성만 오인환 오영복등이 참가했다.

이 日本北알프스등반이 계기가되어 65년4월에는 본교 산악부서 日本알파인클럽山莊會팀을 초청, 설악산에서 합동등반을 실시했으며, 그후 立敎大山岳部와는 자매결연을 맺어 일찍부터 국제교류등반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본교산악부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뭐니뭐니해도 1980년 4월28일의 마나슬루 등반이다. 이 등반은 자금조달에 무척 애를 먹기도 했으나 학교당국과 동문들의 고마운 손길이 있어 마침내 우리 東國山岳人이 8,156m 정상에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었다.

이 자랑스런 등반대원들은 대장에 李仁禎, 부대장에 李永鎬, 대원에 金光鎭, 柳泰元, 徐東煥, 梁明秀, 李鍾亮등 7명이었다.

이밖에도 본교 山岳部를 빛낸 이들은 에베레스트隊의 都昌鎬, 마카루隊의 邊裕根, 崔正에베레스트隊長의 吳仁燦등 개인적인 활약도 돋보이고있다.

한편 본교 산악활동은 部員만의 활동을 넘어 全東國人의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회원자격에 별다른 제한없이 출발했던 탓으로 창설10년째에는 교직원·동문을 망라해 OB산악회가 아닌 모든 東國人을 수용할 수있는 東國山岳會의 탄생을 본것이 그것이다.

이 모임의 초대회장은 洪鳳來, 2·3대 회장 崔載九, 4대회장 李丙疇, 5대회장 金鎭福, 6대회장 金容浩동문을 거쳐 7대회장에 초대山岳部長이었던 내가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8대 林信喆, 9대 鄭鎭永(現)등 山岳部출신들이 회장을 맡게된것은 본교山岳部의 성장을 말해주고 있지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본교山岳활동은 자체적인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난 70년4월 시작된 東國人등산대회(17회)와 매년 가을 전국 유명 山을 찾는 東國山岳祭(18회)등에 모든 동국인을 참가시키고 있어 他大學이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다.

반면에 아쉬운 것은 그동안 5호까지 발간된 「東國山岳」誌가 중단된 것인데 빨리 속간되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어쨌든 본교 산악활동의 희망은 더 큰 힘을 축적시켜 5~6년뒤에 東國에베레스트 원정을 실현시킴으로써 세계의 최고봉위에 校旗와 동국산악회기를 꽂는 일이다. 모두 이날을 위해 정진하자.

鹿野苑

月不在脂

▲작열하던 태양도 아침 저녁의 찬 이슬에 식어가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이다. 가을이면 으례히 밤은 길어진다. 저녁이면 대개는 가족끼리 TV앞에 모여앉아 오붓한 한때를 보낸다. 선량한 우리의 서민들은 TV앞에서 울기도하고 웃기도하며, 때로는 전해지는 뉴스앞에서 흥분도하고 경악도 한다. 이렇게 TV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된지 이미 오래다. ▲화상을 전기신호로 보내어 수신측에서 화상을 재생하는 T·V는 대중에게 신속한정보를 제공하며 오락의 중심이 되고있다. 또 공통관심사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수 있도록 토론의 場을 마련, 시청자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렇듯 TV의 기능은 정보의 제공에서부터 오락·홍보·계몽의 기능등 그의 역할은 다양하고 막중하다. 이러한 TV의 막대한 영향력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TV의 「생중계냐 녹화냐」로 옥신 각신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生중계를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직선개헌 열기를 다시 일으키려한다. 만약 그것이 상대방의 제지로 뜻대로 되지않을 때에는 거리로 뛰쳐 나가겠다는 심산이고 보면 상대측은 어떻게든 저쪽의 의도를 무산시키려고 혈안이 되기마련이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늘 그래왔으니까 말이다. 이들 정치인들은 진실한 민중의 개헌여망은 뒤로한채 「생중계냐 녹화냐」를 놓고 좀스러운 입씨름으로 소일하고 있으니 기가막힐 일이다. ▲月不在脂―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정작보아야할 달은 보지못한다」는 뜻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할 목표는 도외시하고 하찮은 일에 얽매여 大事를 그르치는어리석음을 꼬집는 한자성어다. 애초에 국민적 성화와 여망에의해 간신히 발단된 개헌의지가 지금에 와서는 하찮은 일에 서로 핏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요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뿐 [illegible] 아니다. 제발 우리의 [illegible] 이상의 月不在脂를 범치않았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永〉

Speaking Listening Expressions • Speaking

SLE ENGLISH CONVERSATION COURSE

훌륭한 강사에게서만 좋은 말씨를 배우게 됩니다.

담당 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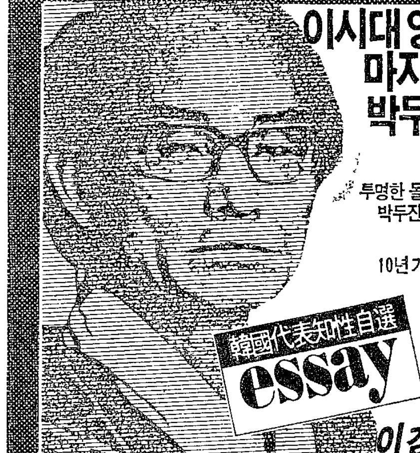
Mr. Lambert, F-UC Berkeley 언어학 석사, 동대학 강사역임
Miss Mainland, J-Smith대 TESOL 전공석사, ESL영어교수역임
Mrs. Mogilner, S-Minnesota대 영문학 학사, "Energy"사 Editor
Mr. Morgan, B-Nevada대 영어교육학사, 고교 교사역임
Mr. Robinson, T-UCLA 영문학 학사, Famillian 무역부장 역임
Miss Stalnaker, B-West Virgina대 교육학 학사, 교사역임
Miss Summerton, J-Andrew대 영어교육학 학사, 동대학조교역임
Mr. Twining, J-TAMPA대 사회학 학사, 고교교사역임
Miss Van Alstine, B-Minnesota대 언어교정학 석사, 고교교사역임
Mr. De France, S-CAL STATE대 영문학 석사, 동대학 교수 7년역임
Mrs. De France, M-Long Beach City대 Liberal Art학사, ESL 강사역임

*신입생 전원 Placement Test에 의한 학급편성
*동일 Level로 구성된 12명 정원제-2개월 단위 5학기 과정

I CAN DO PAGODA LANGUAGE INSTITUTE
274-4000/6821~2

Speaking Listening Expressions • Speaking

이시대 양심의 표상이며 마지막 청록파 시인 박두진 교수의 삶과 생활철학!



투명한 물의 영혼처럼 우리의 곁을 지켜준 박두진교수, 청록파의 마지막 시인이며 우리시대 양심의 표상인 그가 10년가까이 써모은 근작 에세이 80편! 변절의 계절이던 70년대에도 그는 캠퍼스를 지켰고, 곡필아세가 출추던시대에도 그는 올의 영혼처럼 우리들곁에 투명했다.

韓國現代代表知性自選 essay

가을이 오고있다 이 감동을 읽읍시다!

朴斗鎭 散文集
그래도 해는 뜬다

●한국 의식수용의 새지평 김우종 에세이 꽃과 슬픔의 美學
●이땅의 마지막 선비정신 조지훈 에세이 내일을 위한 知性
●영원한 우리詩의행정신 박목월 에세이 달빛에 木船가듯
●한국서정의 지평 조병화 에세이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불타는 영혼의 詩心 김남조 에세이 먼데서 오는 새벽
●우리들의 그리운 고향 박재삼 에세이 아름다운 삶의 무늬
●한국문단의 영원한 렌 모윤숙 에세이 고독을 부르는 시론
●산다는 것의 실천적 의미 안병욱 에세이 이 아름다운 生命을
●민족적 삶의 체험 신경림 에세이 다시 하나가 되라
●한국근대 명수필 모음 생활인의 哲學

讀書話題!

創立1959 어문각 562-7844 562-7845

'86 신제품 대학생낚시인을위한 로얄골드 탄생

전통을 자랑하는 품격높은 낚싯대

꾼들의 家寶는 역시 훌륭한 낚싯대죠.
할아버지때부터 家寶 제1호로 손꼽혀온
로얄 낚싯대…
오직 월척에 승부를 건 낚싯군이라면 언제나
로얄낚싯대를 선택합니다.
로얄낚싯대는 인내와 끈기의 베테랑—
로얄맨을 위한 품격높은 최정상급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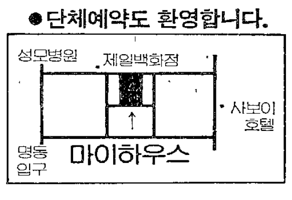
□로얄골드
□로얄만능은파
□로얄해류

전통과 품질의 낚시대 Royal 로얄스포츠

언선 10년 자부심 동동동동 명명명명

김범룡
임병수
박세민

너와 나의 선배가 낭만과 추억을 남기고 간 디스코 마당.
"명동 마이하우스"
●단체예약도 환영합니다.



디스코 텍 TEL: 777-6861/2
MY HOUSE

非民主的 행형제도와 양심인의 저항

구치소內 인권유린사태를 보며

I、序

1986년7월 어느 밤、장마전선에 포위된 서울의 한 모퉁이가 흥건히 비에 젖고 있다。가로등 불빛아래 통일로로 뻗어간 아스팔트가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늦은 귀가를 재촉하는 시민들이 이따금 피곤한 시선으로 버스의 창문 밖을 내다본다。그러나 그들이 왜 30여명의 40·50대 여인들이 구치소 입구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노숙하고 있는지 알리 없다。이따금 초췌한 얼굴 목쉰 소리로 철책너머 감방에다 자식을 둔 어머니들은 외친다。「폭력교도관 처단하라」「부당한 금치조치 해제하라」고。그러나 그 소리조차 질주하는 차량의 거친 숨소리에 묻혀버리고 만다。

그렇게 어머니들은 3일밤낮을 보냈다。뒤이어 인천、대구 …

와 구치소는 지금 1천5백여의 양심수로 그 수용한계를 넘어 과포화상태이다。학생·노동·청년·종교·재야의 각 부문에서 활동하다 구속된 그들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유폐된 공간은 억압장치이다。

이울러 감옥은 조선의 독립이라는 불온한 정치적 이견을 가진 자들을 압살하고 보복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는 1907년 한일의정서 조인직전에 일제가 이민족통치의 선결조건으로 맨먼저 착수한 것 …

柳 時 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원주、전주、영등포、강릉、의정부등지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변호사들이 연일 고발장을 쓰고 국회에서도 이따금 구치소내 폭력사태가 성토된다。그러나 그 무슨 대수인가『고문이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짤막한 답변 하나로 국회대정부 질문의 답변자는 모든 소음을 명쾌히 척결해버린다。최근들어 더욱 빈발하고 있는 구치소내 가혹행위의 현장을 목격하고 보고서를 접한 필자는 자문해 본다『우리는 과연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2、양심수들、유폐된 수형지로서의 감옥을 거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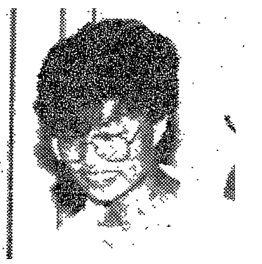
소내인권 유린사태는 근원적으로 지난 학기동안에 구속된 학생이 9백여명이라는 정부통계로부터 기인한다。전국교도소에서의 수동적 옥중생활을 거부한다。각종 비민주적인 행형제도는 원래 일제식민통치의 유물로서 그들이 조선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고 수감자들로 하여금 인간적 모욕과 능멸을 느끼도록 온갖 형태로 고안해놓 …

◇서울구치소 …

집필허가 얻기위해 무려 5개월 투쟁

"民主化란 말은 단지 말만으로 아름다운 것인가"

결집된 힘으로 拷問철결을…



유 재 옥

拷問… 인류문명 최대의 수치

人間은 누구를 막론하고 拷問을당해서는 안되며、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세계인권선언 제5조>

「있을수도 없고、있어서도 안되는 拷問」—그러나 유사이래 아직까지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또한 고문이다。拷問이란『죄를 진 혐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위해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심문함』이라는 것이 일반적의미이다。좀 더 상세한 정의를 인용한다면『고문이란 정보·자백의 취득이나 형벌을 과하기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비인도적인 처치를 말하는데 흔히 쓰여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인도적 처치와 가혹한 형태를 말한다。비인도적인 처치란 잔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계획적으로 가하는 처치를 말하고…』라는 유럽인권위원회 정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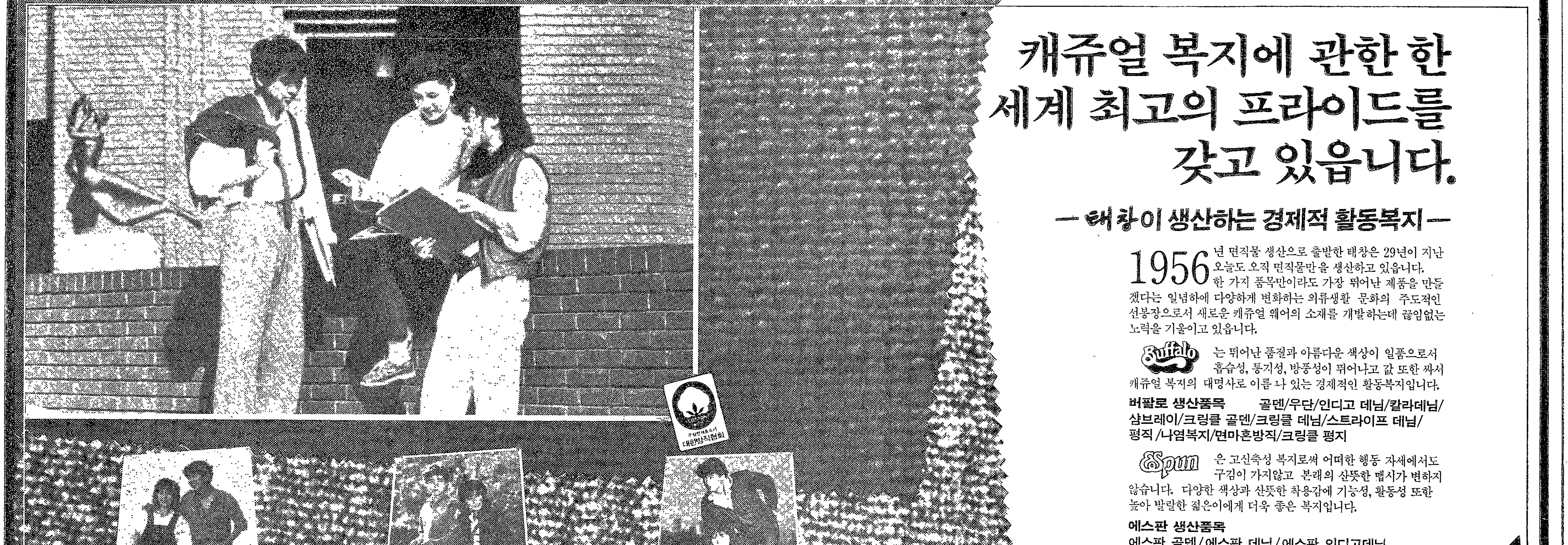
이러한 고문은 인류가 공동체생활중 계급분화와 함께 범죄자를 적발·제재할 필요성과 지배계급의 체제유지를 위해 그 적대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형태로 생겨났다고 추측된다。이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문은 비합법적·반민주적 지배체제를 유지해 오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음으로 양으로 자행되어 오늘에 이르고있다。이를 정치선진국보다는 정치후진국、특히 민중적 토대를 갖지 못한 국가주의나 독재정권·파쇼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 고문의 심각성은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데에 기인한다。즉「행정의 기본 논리로서」또는「통치의 기본적 …

더이상 "갈릴레오"만들지 말아야

가혹한 고문은 집권세력의 변태적 통치수단

고문·폭력 사례



수입속에 상실된 「민족자주」

1、머리말

지난 7월21일 한미통상 협상이 타결되었다。 9월1일부터 양담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양담배를 피우면 매국노로 취급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부가 앞장서서 양담배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통상협상의 일괄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입개방압력과 노골적인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미국농축산물、늘어만 가는 농민들의 빚、빚더미。 3백50여 가지의 농축산물을 수입하면서 그 액수는 지난 5년동안 7조6천7백억원。 더이상 지어볼 농사가 없는 농민은 호당 3백만원 이상의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무엇때문에 1천만농민은 엄청난 외국농축산물수입의 피해로 빚더미에 짓눌려야 하는가。 허울좋은 개방농정은 누구를위한 정책이며 농가부채는 누구때문에 짊어졌는가。

2、외국농축산물수입의문제점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지난 60년대 초반까지만 95%를 유지해오던것이 7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평균 60%수준에서 맴돌았고、80년대 개방농정의 실시이후 식량자립도는 절반이하로 떨어져 85년의경우 48·5%로 하락하였다。 식량자급율의 하락은 바로 농축산물수입의 증가를 말해준다。 1962년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106·7백만불이던 것이 71년에는 553·8백만불로 5배나 늘어났으며 81년도에는 22억9천1백만불로 급증하였다。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종류도 소꼬리·소뼈·고추장·양곡류·사료·양념류등、3백50여종에 달해 거의 모든 농축산물이 수입되고 있는실정이다。 그 근본이유는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식량을 자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균형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자구책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농축산물이 수입되는 현상적인 이유는 국내농축산물의 생산비가 외국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비를 낮출수 있는 공산품생산을 지원하여、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로 값싼 외국농축산물을 수입해 먹는것이 좋다는 선진자본의 경제침탈을 미화한 비교우위론과 상호우호관계를 든다。 또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나라 농산물을 사준다는 구상무역 농산물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물가안정이란 명목으로 왕창수입하는등 그 이유도 다양하며 그럴듯하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수입의 본질은 얻는자와 잃는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확실하다。 그 일례로 농산물수입과정에서 정부는 소 18만마리、쇠고기 2억4천5백만근을 수입하여 6천억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농민은 소값폭락으로 2조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았다。 바나나 수입으로 여름과일이 20~30% 폭락하여 참외농가는 1백8억 3천만원、수박농가는 2백16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는 농축산물수입의 본질이 저임금·저곡가를 기반으로한 국내외독점자본의 초과이윤을 실현하기 위함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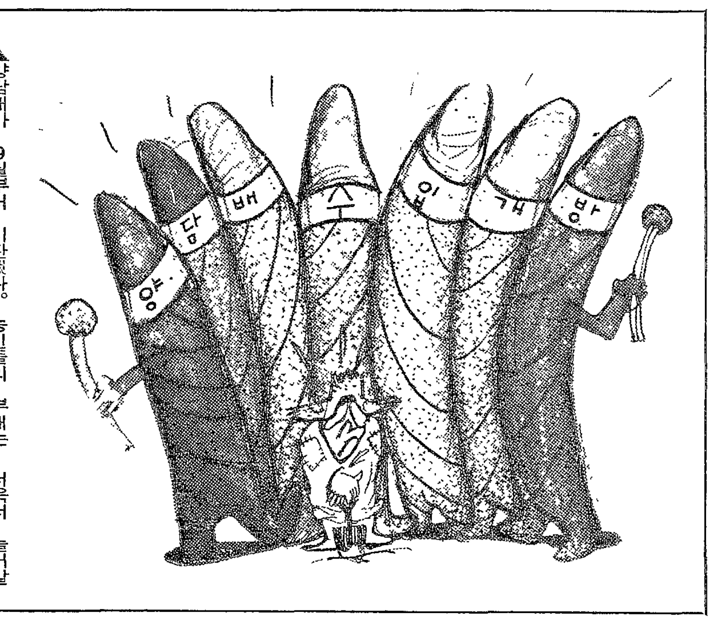
개방농정의 구조와 배경을보면 그 본질이 더욱 분명해진다。 개방농정은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에 따라 저임금 저농산물가격을 기반으로 지속적인고도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통해 저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고 농가경제 압박은 복합영농 기업농 육성、농지임대차 양성화、농촌공업의 육성을 통해 해결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개방농정은 농민·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님을 그누구도 쉽게 알수있다。

80년대이후 개방경제체제에 입각한 개방농정의 배경은 선진자본주의 제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제3세계국가에 전가함으로써 극복하려는데있다。 국내의 독점자본의 독점적 초과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농민은 저임금·저농산물 가격으로 최악의 삶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농정이 실시되는 근원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자본의 예속성·관료성에서 찾을수있다。 그 출발은 해방이후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인 미잉여농산물의 과잉도입으로 자립적발전이 충분한(1949년 쌀수출량 6만2천6백섬) 한국농업기반을 파괴하였고 자립적 한국경제의 균형발전을 저지하여 대외종속적인 경제구조를 창출하였다。 즉 원조는 차관·합작투자·직접투자로 탈바꿈하면서 신식민지 경제잉여의 초과착취를 강화하였다。 60~7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미국농축산물의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1조5천여원어치의 미국농축산물을 수입하는 미잉여농산물의 판매처리장화 했다。 미국농업의 과잉생산을 한국농업에 전가되고 1천만농민을 그 등쌀이 더이상 지어볼 농사도 없어졌다。 이제 농축산물수입은 농민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족생존권의 문제가되었다。 농축산물수입을 강행하는 본질은 곧 매국행위이며 이를 저지하기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민족자주화투쟁이라할 수 있다。

> 소꼬리、소뼈、고추장 양곡류、심지어 양념류등 3백50여종이상의 거의 모든 농축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 농축산물 수입의 본질은 저임금·저곡가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독점 자본의 초과 이윤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양담배가 9월부터 시판됐다。 농민들의 부채는 더욱더 늘어갈 전망이다。 그속에서도「개헌」과「아시안게임」에 매스컴을 통한 국민의관심은 쏠려있고 가중되는 농민들의 고통은 묵과되고있다。 本紙에서는 양담배수입을 계기로 계속되는 농축산물수입속에서의 농가부채현황을 살피고자 이난을마련한다。 〈편집자註〉

3、농가부채의 문제점

농민들은 일년동안 뼈빠지게 농사지어봤자 남는 것은 빚더미와 한숨밖에 없다。 갚을수 없는 빚더미에 야반도주、빚잔치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있다。 농수산부「농가경제조사부연」에 따르면 현재 농가호당 부채는 평균2백7만1천원으로 전체농가소득의 36·1%에 달하고있다。 80년이후 85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농가소득이 연평균 17%、농가자산이 16·3%증가로 2·1배늘어난 반면、농가부채는 년평균 54·1%의 증가로 무려 6·1배가 늘어났다。 (75~85년동안 농가부채는 62·8배나증가) 농협중앙회「농가신용실태조사」에서 85년현재 농가호당 부채는 2백85만원으로 나타나있으나 3백만원이 훨씬 넘는것으로 추정되며 총6조원이 빚쟁이신세가 된 것이다。 특히 영세소농은 이자가 비싼 사채에 의존하고있어 (84년 사채 월40·6%) 부채로 인한 고통이 훨씬 심각함을 알수있다。 농가부채문제의 심각성은 갚을길이 없다는 것이다。 가계성 부채가 3분의1을 넘어서 85년 35·2%에 달하며 진 빚을 갚기위한 빚이 10·6%에 이른다。

벼농사 소득을 농가부채와 비교하여、그 실상을 알아보면 85년 농 및 총액 5조7천억원은 2백만 농가가 1년동안 지은 쌀농사총액 3조8천억원 보다 1·5배가 많으며 정부의 쌀수매액 1조7백억원 보다는 무려 5배가 넘는다。 한해 갚아야할 이자 1조3백70억원만 하더라도 전체 쌀수매액의 97%나되어 제아무리 기고 날아도 빚더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와같이 농민들이 빚을 진것은 농민들이 게으르거나 농사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경제성장과정에서 철저히 농업희생정책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즉 농가부채의 증가원인은 한국농업의 구조적인 모순과 농업정책 때문이다。 한국농업의 영세소농경영양식은 독점자본의 농민수탈의 기초이다。 소농은 자기노임이 실현되지 않는 최저상태에서도 과중한 노동과 절약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독점자본은 소농경영을 온존시킨채 농업지배를 강화한다。

또한 독점자본은 저임금을 통한 독점적 초과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저농산물가격정책을 강요하고있다。 외국농산물 수입을 통한 국내농산물가격의 하락과 수입농산물의 막대한 판매이익、정책적인 쌀값·보리값 등의 동결조치로 초과이윤을 실현한다。 농민들은 독점자본가와의 교환과정에서 부등가교환으로 일상생활과정속에서 엄청난 경제잉여를 독점자본가의 손아귀에 고스란히 내놓게 된다。 농민들이 빚을 지게된 원인에는 이외에도 과중한 조세부담、85년1천만농민에대한 금융지원이 1개 재벌의 금융지원의 16·1%에 불과한 부실한 농업금융 지원등 수없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가부채의증가의 근본원인은 농민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민들이 지은 잘못이란 힘들게 농사지어 자식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공부 가르칠 돈이 없어 오늘도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가슴 아픈 한맺힌 고통밖에 없다。

> 농가부채의 가중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자본의 예속성·관료성에서 찾을수 있다。

4、맺음말

작년 소몰이투쟁으로 열화같이 타올랐던 농민들의 함성이 지난 9월 1일 망국적인 양담배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29개 지역 농민들의 열렬한 투쟁으로 이어졌다。 외국농축산물 반대투쟁은 농민생존권의 확보의 문제를 넘어 민족자주화 투쟁의 횃불이 되고 있다。 또한 농가 부채문제는 농가부채 상환거부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운동은 빚더미 청산하고 떳떳한 주인으로서 농민의 삶을 살길을 찾기위해 반외세 민족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있는 것이다。

김 은 수(농민)

알 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게재되고 있는 학생컬럼「東友塔」은 투고된 원고가 없어 이번주는 쉽니다。 앞으로 독자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투고 바랍니다。

식민구조의 연속 "농협"

——농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당국의 단체장임명은 민의에 위배
정부의 정책사업 대행에서 탈피해야

一、序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 상공업자、농민、소비자 그리고 영세민들이 자본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농협은 잘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 농협과는 달리 정부주도의 下向式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여기서부터 胚胎(배태)되는 문제점은 그 심각도가 적지 않다。

물론 현 한국농협이 각종 영농자재의 공급등을통해 농업생산력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앞장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연쇄점을 운영하여 양질의 생필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등 농촌·농업부문에 기여하는바가 적지않다。 그러나 설립당초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下向式으로 조직되어 정부의 정책사업을 과다하게 수행하며、조직이 경직화되어있어 사업실시가 지역사회실정과 괴리된채로 수행되어지는등 그역기능 또한 적지않음을 주목해야한다。

이러한 한국 농협의 근본 문제는 그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데 있다고보며 그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二、한국농협의발전과정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1950년 농지개혁으로「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 농지가 귀속되었으나 다수의 농민에게 적은 농지가 분배됨으로써 대부분의 농민이 영세소농의 상태였다。

따라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위한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에 제약이 있었으며 지주계급의 붕괴로 영세소농층이 농촌사회의 경제적 지주로서 실질적인 기초가 되어야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당면과제는 농민경제의 영세성을 극복하여 생산과 유통활동의 합리화를 추구해가는데 있었다。 상업적농업이 아직 발달하지못한 당시의 형편에 비추어볼때 생산활동을 조장시킬 구매행위의 조직화가 시급했으며 이를 위한 조직적 신용사업의 전개가 필요하였으나 농민의 경제적·정신적 여건의 미숙등으로 농지개혁과 병행하여 조직되지 못하였다。

이후 1957년 2월14일 농업신용을 위한 농업은행법과 농촌경제사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었으며 1958년5월 농협중앙회 초대회장이 선출되고 동년10월20일 업무가 개시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농협이 비로소 발족되었다。 그러나 농업은행과의 분리로 인한 자금압박과 사업체계의 미비、경영기술의 미숙등으로 농협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있었다。

5·16혁명 이후 혁명정부에 의해 1961년7월4일 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이 폐기되고 신농협법이 통과·공포되고、농협중앙회 회장에 현역군인이 임명되었으며「농·수·축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단위조합장을 임명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하향식 관료조직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또한 초창기의 里洞조합은 형식적인 명목조직에 불과하였으며、사업활동은 군조합을 중심으로 한 정부대행적 정책사업이 중추를 이루었다。

三、現 농협의 실상과 문제점

한국 농협은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기구로서의 금융조합의 기구 및 인적자원의 계승으로 인한 중앙집권적 계통조직이라 할 수 있다。

성립과정에서 서구의 농협은 농민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상향적으로 조직되었다。

반면에 한국의 농협은 국가적 필요성에 의거 하향적으로 발생하였으며、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직된 획일적 계통조직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임시조치법에의한 민주적 상향과정의 배제와 정부감독의 강화에 의해 지나치게 관료조직화되어 왔다。

현 농협도 농업용자재의 공급및 영농지도 등 농업생산력을 제고시켰고、농산물의 공동판매및 선도적 유통개선기능의 수행 등으로 농산물 유통의 합리에 기여했으며、주택개발이나 생활물자의 공급등으로 농촌생활문화의 증진등 국민경제적 역할이 크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정책사업의 과다로 인하여 농민의 이익에 상치되는 일이 없지않으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및 민주성이 결여되어있다。

또한 전체 농민 의사의수렴과 조정이 곤란하며 조직이 관료화 경직화 및 비능률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추진으로 지역실정과 괴리현상을 초래하는 등 역기능이 있다。

이들의 근본적인 요인은 임시조치법에 의한 조합장의 임명으로 조합원의 민주적 조합운동에의 참여를 배제하였으며 농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설치로 인한 국가 관여의 증대와 중앙회 회장이 총회에서 민주적 방식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않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임명해 온데에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농협운동이 민중적으로 정착화하고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의 원칙과 대외적으로 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됨으로써 전 조합원의 이익을 올바르게 국민경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농협운동에 있어서 민주적원칙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권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

민정당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25년간 존속되어 온「농·수·축협의 임원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을「농어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폐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침은 고무적이라고 할수있으나 협동조합의 운영에 정부가 간여하고 정부에서 25년간이나 단체의 장을 임명해 왔다는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성격이나 목적에 위배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러므로 차후의 단위조합장 선출은 總代會에서 직접 선출해야 할은 물론 중앙회 회장도 이번 기회에 임명제를 폐지하고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만 할것이며 정부의 간여도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농협이 일정한 국민경제적 테두리안에서 경제적 이해를 달리하는 사회구성체로서 국민의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선행되어야만 할것이다。

이것이 구성원간에 민주주의적 참여의 원칙이 관철되고 전체적 총화의 기구적 반영인 조합에 농민적 이익의 관철을 보장하는 첩경일 것이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기구이어야 한다는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저농산물 가격정책의 집행을 위한 농협의 곡가하향조작에 참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四、맺음

전술한 바와같이 농협은정부의 주도하에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기구가 되어야하며、국가의 대행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농협이 아니라 조합 구성원의 신변에 가까운 생활 제문제에 보다 중점을 두는 자립적 농민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千善友 〈대학원農經科석사과정〉

NEW CAMPUS LIFE '86 AUTUMN IMAGE OF SERGIO VALENTE

우리의 자신있는 패션언어
써지오·바렌테

젊음, 낭만, 대화, 만남, 사랑 그리고…
대학 생활의 모든 것, 젊음의 모든 것을 새롭게—
써지오·바렌테라면 그 자체가 젊음.
자신있는 젊음이 여기 있다!
우리의 자신있는 패션언어—
써지오·바렌테.

언제나 새로운 스타일 써지오·바렌테

Sergio Valente®

'써지오·바렌테'는 삼도물산이 미국 잉글리쉬 타운사와 기술제휴로 생산 시판합니다

鄕土史学 그 脈을 찾는다 <3>

―특히 湖南지방을 중심으로

▲임란때 거북선을 건조, 대피시킨船所 (좌)

▲섬진강유역일대는 전설에 얽힌 地名이 많다。(우)

이름은 「이르다」에서 전성된 말로 유형무형의 사물을 말로 일컬은 「名稱」 것이다。사람에게 각각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이름이 있듯이 사람이 사는 땅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이름이 있어왔다。우리는 초기에 문자가 없어 한자를 빌어썼기에 이름 표기에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것이다。곧 초기의 이름은 순수 우리말을 한자의 훈이나 음을 빌어썼고 다음에는 한자어를 중심으로한 이름으로 번지어 오늘에 이른것이다。

사람의 이름이 그렇고 땅이름도 그렇고 기타 사물의 이름이 그러했다。예를 들면 居漆夫 (荒宗) 異斯夫 (苔宗)는 순수 국어 이름을 한자를 차용표기한 것이고 金庾信 崔致遠은 姓이 붙은 한자 인명이며 金壽興 金壽桓은 핼열학까지 쓴 人名이며 徐伐은 東京이란 뜻의 순수국어의 한자 차용표기인데 그곳이 오랜동안 신라의 수부가 되다보니 그 地名이 서울「京」이라는 보통명사로 변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開城(松都), 조선시대에는 漢城 (漢陽)에 이르는 고유명사 이기도 한 지명이며 그밖에 순수국어「뫼」「가람」등은 漢字語 「山」「江」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三國史記 地理志를 보면 新羅는 三國을 統一한 뒤 景德王16年 全國的인 行政區域 改編을 단행하고 고을 이름도 바꾸었다。이때 바꾼 이름이 漢字語 이름이고 그이전의 이름이 순수국어 地名의 漢字 借用表記로보인다。

仇只山이 金溝로 古沙夫里가 古阜로, 上漆이 尙質 (興德)로 大尸山이 大山 (泰山)으로, 發羅가 錦山 (羅州)로半奈夫里가 潘南으로, 秋子兮가 秋城 (潭陽)으로 毛良夫里가 高敞으로 豆夫只가 同福으로 改變된데에서 우리는 이걸보는 것이다。이런 現象을 坊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龍城誌>(南原誌)를 보면 옛적 南原府의 坊名중 俗名이 漢字化한 재미스런 몇가지를 살필 수 있다。곧 乭古介가 石峴으로, 乫峙가 葛峙로 표기되었는가 하면, 梅內는 梅岸으로, 金內는 金岸으로, 者省이 南生으로, 竹谷이 大谷으로 표기되기도 했다。南原山城이 있는 산을 蛟龍山이라 하는데 이는 南原의 古號를 위에 붙인 古龍山에서 그리 轉音 표기되었을 것으로 보며, 蛟龍山 東西二峰中 東峰을 福德, 西峰을 密德이라 부르는데, 德은 達과 같이 峰에 대응되는걸 보면 古語의 자취가 남아 있는 말이며 密德의 「密」은 龍의 古語 「미르」 표기일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古龍이 南原으로 변한데는 아무런 그 自體地名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통일 新羅가 그 영내에 五小京을 두었는데 남쪽 지금 남원에 둔 것이 南原小京 (東原京(金海) 西原京「淸州) 北原京 (原州) 中原京 (忠州) 이기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온것이다。

南原小京이 되기전에 이곳을 帶방이라 했다는 기록이 <高麗史>지리지와<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인다。이건全州를 比斯伏 또는 比自火이라 한 것과 같이 百濟가 망한 뒤 그 구역을 둘러싸고 新羅와 唐나라 사이에 그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緣故權을 내세운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본다。

帶方은 後漢王 요동에서 세력을 떨친 公孫康이 낙랑군 남쪽 (지금 黃海道 慈悲嶺이남 漢江이북지역)에 둔 고을 이름이다。이 帶方은 한때 백제의 영역이 되었기때문에 백제 南遷이후에도 중국에서는 백제의 왕들을 帶方郡公으로 봉했고 백제가 망한뒤에는 唐都督府 치하에 대방주를 두었는데 대방주는 南原중심지역인 것이다。이와비슷하게 나온것이 全州를 比斯伐이라 한 기록이다。원 比斯伐 (比自火)은 경남 창녕인데<三國史記>眞興王條에는 「16년 정월 比斯伐에 完山州를 두었다」는 기록이 바로 의도적이다。진흥왕 때라면 신라는 국력이 신장되어 그 징표로 回巡碑까지 남아있으나 통일 이전이다。

百濟의 內地에 있는 完山에 어떻게 州를 설치했을것이냐가 문제다。眞興王十六年은 百濟로는 威德王二年으로 聖王을 이어 착실히 國力을 다져간 때인데 邊方도 아닌 奧地인 完山에 어떻게 州를 설치했을 것인가 百濟威德王條에는 이런 기사가 없다。

<新增東國輿地勝覽>古跡條에는 옛 地名이 많다。羅州牧條에 孫利鄕이 보인다。「羅州北쪽 三十里에 있는데 옛적엔 所山里라 했고 지금은 道林里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이 곳은 지금 老山郡 三道面 道德里 道林마을이다。

이 마을 傳來 우리 순수국어 地名은 「도르메」 또는 「도리메」라고 한다。이 「도르메」가 所山里 孫利鄕 道林里로 異記되었으며 또 圓山林 元山村 元舍村등으로 異記되기도 했다。이 마을을 중심으로 이곳의 名門인 錦城 (羅州) 吳氏들이 많이 살며 널리 알려진 名士들이 많이나왔는데 그 文集 이름에 道林遺集 (吳以久) 石門集 (吳以翼) 石峰集 (吳權洙) 後石集 (吳駿善) 등이 있다。물론 그號를 따라 붙여진 이름이지만 여기 道林 石(돌)이 「도로메」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이 지방名山에 鐙珍山이 있다。

鐙珍山은 다른 방향에서 보면 三峰, 二峰으로 보이는데 이 「도르메」에서 보면 뾰족한 붓끝처럼 날카롭고 둥근 한 봉우리로 보여 名士가 많이 난다는 풍수설이 깃든 곳이다

이 산은 다른 곳에서는 三峰으로도 二峰으로도 보이는데 이「도르메」에서 보면 뾰족하게 붓끝처럼 날카롭고 둥글게 한 봉우리로 보인다。

「도르메」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왔으며 이 곳에는 筆峰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 곳에서 유명한 문사들이 난다는 풍수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또 潭陽都護府條에는 少年巖이 있다。지금 潭陽군 龍면 龍淵리 소년촌 (일명 少天峙) 앞 길가에 있는 바위다。이 바위 때문에 그 부근에 있는 마을을 소년촌이라 했지만 이 少年巖을 둘러 싸고 나오는 이 지방출신 李靈幹의 이야기는 더 화려하다。李靈幹은 高麗 文宗때 사람인데 벼슬은 參知政事에 이르렀다。

어렸을때 烟洞寺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어느날 靈幹은 혼자서 나가 한 동자를 만나 함께 바위위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때마침 큰 호랑이가 바위 곁에 웅크리고 앉았어도 靈幹은 동요함이 없이 바둑을 끝내고 돌아가 절 중에게 이를 이야기하니 중들이 가 보았다。그런데 少年과 범은 간데 없고 바위

柳在泳
<원광대敎授·국문학>

주위에 호랑이 발자취만 남아 있었다고…靈幹이 머물고 있는 절에서 중은 술을 빚었는데 그 술이 익으면 몰래 먹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중은 그때마다。靈幹이 그랬다고 매를 때렸다。

이런일이 두세번 계속되자靈幹은 몰래 숨어서 누가 그러나 하고 살피니 늙은 삵이 와서 먹는것이 아닌가。이를 잡아 죽이려고하니 삵이 사람의 말로 저를 놓아주면 평생에 쓸 奇術을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애걸하니 그때 靑禮童子가 있어 책 한권을 던져주었다。

靈幹은 삵을 놓아주고 그 秘書를 익히어 살아 있을때에 이적이 많았다고 한다。

崔滋의<補閑集>에도 李靈幹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들면 다음과 같다。

『參政李靈幹이 羅州 法輪寺를 두고 시를 지었는데 이르길, 가을이 서늘하여 늦경치가 가장 좋은데 하룻밤을 蓮房에 자며 눈썹 한번 펴보네, 밤이 깊어가니 북두성은 빛이 더욱 찬란하고 樓臺에 달이 굴러 그림자 參差하네。여섯 때에 길이 빛나 慈燈을 밝고 만고에 길이남을 聖跡이 기이하네。맺어얻은 좋은 인연 무슨 일인가 마음 사르는 香 供養부처를 스승 삼네

「秋凉晩景最相宜 一宿蓮房一展眉 星斗夜深光燦爛 樓臺月轉影參差 六時永耀慈燈朗 萬古長存聖跡奇 結得尹緣何事也 熱心香供佛爲師」

했다。혹 이 시의 끝 구절이 묘하지 않다고 하고 「也」字를 쓴 것이 더욱 疎野하다고 하나 그게 잘못이다。공이 임금을 따라 朴淵에서 놀 때에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니 앉아 있던 돌이 흔들리어 임금님이 놀랬었다。公이 勅書를 지어 못에 던져 용의 죄를 따지고 벌을 주려고 하였다。용은 바로 깨달아 그 등을 내놓고 매를 맞으니 公의 글은 신령스럽기 헤아릴 수 없는데 어찌 이 하찮은 시 가운데 한 글자의 工拙을 가지고 公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지명은 여러가지면에서 개변된다。그예를 지금은 정읍군 병합된 옛 泰仁고을에서 들어보자。泰仁이라 이름도 泰山과 仁義 두 고을이 합해지면서 두 고을을 약칭하여 된 이름이다。태산은 원래 (백제때) 大尸山이었던 것이 그 뒤 大山帶山, 太山泰山, 詩山등의 이름으로 불리웠다。大山 帶山 太山 泰山등은 音 또는 訓의 異記이며 詩山은 尸山의 異記로 美化된 명칭이다。지금도 옛적 泰山고을의 治所였었다는 부락 이름이 詩山里 (七寶面) 인 것이다。그런가 하면 仁義는 원래 賓屈이던것이 斌城으로 바꾸어졌고 그뒤에 仁義로바꾸어졌다。

賓屈이 斌城으로 한문중심의 미화표기이고 빈성이 인의로 바꾸어진것은 아마도 「斌」字를 破字해서 문무로 이 문무를 인의로 연관시켜 개변시킨것이 아닌가 한다。泰仁의 異名을 「武城」 「賦城」이라 부르는것은 말할것 없이 「斌」가 그리 개변된것이다。泰仁에 있는 무성서원의 무성이란 이름도 여기에서 온것이다。

무성서원이 있는 자리는옛적泰山고을에 있으면서도 여기 무성에서 따왔으며 崔孤雲이 泰山郡守로 있으면서교화함이 많았다하여 그를 享祀하는 곳이다。

武城은 옛적 中國魯나라에 있는 고을로 孔子 弟子 자유가 이곳 원으로가 禮樂으로 다스리니弦歌소리가 들리었다고 한다。그것과 관련하여 武城書院의 門樓를 弦歌樓라 한 것이다。 碩學 頤齋 黃胤錫 (1727~1791) 도 그漫錄 (頤齋續稿卷十一)에서 興德의 地名 변천을 이야기하면서 興德의 옛이름「上漆」을 中國 古代莊周의 漆園과 관련하여 好事者들이 莊子에 나오는 培風과 逍遙에서따 縣館을 培風軒 뒷산을 培風山 西쪽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逍遙山이라 했다고 한것은 卓見이라 아니할수 없다。

以上에서 본것처럼 地名의 改變이나 派生을 여러가지 면에 기대어 된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글싣는 차례
1. 연재를 시작하며
2. 충청지방에있어 백제권 문화
3. 전라지방의역사와지명관계
4. 강원도 일대의 민속 자료
5. 경기도 일대의 전래동화
6. 경상도의 사찰구조및 현황
7. 연재를 마치며

하늘

下 潤

한낮
오수가 기운
물가
심심해서
빨알가니 꽁지빠진 잠자리들과
배때기 하얀 왕제비들과
시골 여름은 한나절을 난다。

가끔은
아이들이 저의 아빠랑 같이 와서
한유한 구름뭉치 사이로
낚시를 던져
한나절 은진 월척을
낚아 올리곤 한다。

새털구름
조개구름
구름뒤로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가 숨는다。
싱싱한 고기비늘 털리는
물빛 정회를 일까보다。

<시인·교육대학원생>

살아있는 大學人

東岳路

『처음에는 무언가 내힘으로 할 수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했어요。』그래서 병원등에 연락해서 위문단체등을 찾아봤지만 헛수고 였는데 우연히 학교게시판의 「교사모집」광고를 보고 이일을 찾게됐다며 취재를 완강하게 거부하다 끈질긴 기자

박혜정孃

의 부탁에 겨우 응해준 박혜정 (가교과·4) 양의 첫마디。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소년 △△고등학교 (부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음)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박양은 지난해부터 야학교사를 해오고 있다。

『현재 1학년 50여명, 3학년이 30여명으로 총80여명이 있어요。처음에 1백20여명 정도 입학하면 졸업생도 20여명정도예요。대부분이 미싱시다, 인형조립, 전자제품공장등에 다니며 월 10만원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라 힘이 들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보통 한두시간씩 늦기도 하고 결석을 해도 야근 철야 집안문제이기 때문에 혼낼 수도 없어 여건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실토하며 무엇보다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피곤하다가도 학생들의 눈을 볼때면 오히려 힘이나는걸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도 한다는 박양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피곤하다가도 학생들을 보면 오히려 힘이 나는걸요。』하며 학생들과 무척 깊이 정이 들었음을 느끼게 해준다。

『저희는 검정고시 야학인데 검시를 강조하다보면 너무 지식전달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요。』라며 그룹토의나 노동법강좌등을 통해 비판의식과 자신들의 제권리도 지킬 수 있게하기 위해 「노동야학」과의 중간형태인 「생활야학」이 가장 적당할 것 같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게 가장 어려워요。보통12시경에나 집에 들어가죠。지난 5월부터는 부모님의 반대때문에 타자학원에 다닌다고 할수없이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부모님껜 정말 죄송하지만…』이라며 학교에서 밤을 세우게 될때가 입장이 가장 난처하다고 밝히기도 한다。

지난 8월의 검시에서는 대검, 고검 모두 5명이 합격했다며『올해 대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2명정도 있는데 합격하면「일일찻집」등으로 등록금을 마련해 줄 생각』이라며 예산의 마련도 가장 절실한 것중의 하나라도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집안문제를 갖고 울먹이이며 상담하는 학생이나。서너달치의 밀린 월급을 못받고 찾아온 학생들을 보며 울때도 많았다。』며 학생들에게 강하게 보여야할텐데 너무 마음이 약해서 탈이라고 걱정한다。

『야학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매스컴에 오르내리거나 할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라며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차양。

12일에는 축제인 「청야제」가 있고 11월신입생 모집을 위해 벽보작업도 해야한다며 바삐 서두르는 모습을 뒤로하며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젊은이로서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겠다는 바람직한 대학인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김정균 記者>

東國漫評

◇『86, 우리도 뛴다』

無垢淨光 陀羅尼經 완전복원

80周事業 本校 稀貴佛經영인 小委서 개가

原形 가장 가까운 형태로

世界 最古 印刷物인「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본교 희귀불경 영인 소위원회 (위원장=金鎔貞교육대학원장)에 의해 완전 복원되어 지난 7월29일 공개되었다。

개교80주년을 맞는 佛敎종립학교로서 우리 민족의 불교문화 유산을 전승하고 한국불교문화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학술적 연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여 지난해3월 발족된 복원위원회는 우선 국가적사업 가치를 가진 다라니경의 복원을 본교 80주년기념사업으로 설정, 심혈을 기울인 끝에 완전복원을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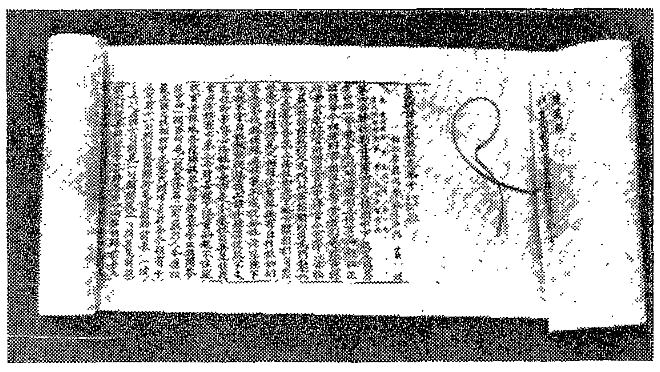
지난 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무구정광 다라니경」은 그 보존상태가 매우 낡아 전체分量가운데 前部1/2정도가 중간에 1行내지 2行이부식되어 그 복원사업이 시급했었는데 이번에 사진필름을 소장해 둔 趙明基 前총장과 朴相國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원본상태로 영인했다。金교수는 이번 복원작업에 대해「그실제 규격과 행간 맞추는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글자복원사업후 신라시대의 종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원주영천사의 재래 비법을 도입, 원지와가장 가까운 상태로 만들었다」고덧붙였다。

이번에 복원된「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당나라 고종왕후인 則天武后 말년에 彌陀山이라는 승려가 漢譯한 것으로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 당시의 則天武后字 4種이 10회에 걸쳐 사용되어 있어 이 인쇄물이 서기 7백51년에 간행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전체길이가 6백47㎝에 이르는 이「다라니경」의 내용은 新羅聖德王 5년에 神文王妃인 神睦太后와 孝昭王의 명복을 빌기 위해 佛舍利와 함께 석가탑에 소장해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陀羅尼經은 世界最古의 木板印刷物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 수준을 입증해 주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로 지금껏 세계 最古의 인쇄물로 인정받던 일본 법륭사의「百萬塔다라니경」보다 20년이나 앞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同위원회는 이번「無垢淨光大陀羅尼經」영인사업에 이어 高麗續藏經인 貞元新譯 花嚴經疏 영인사업도 벌였는데 이를 주관한 千惠鳳교수(성대·同門)는『이들 우리나라 일품의 영인사업이 제반관련학문분야 연구에 큰 도움을 줄것이다』라고 말했다。<취재부>



▲지난 7월29일 완전 복원, 공개된 世界最古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다라니경。

병사휴학 학칙개정

文敎당국 인가받아

본교당국은 지난달 26일 문교부 기획조정실 에서 발표한 병사휴학과 복학에 관한 개정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가, 이번 학기부터 시행토록 했다。

새로 시행되는 학칙내용을 살펴보면 학칙 제50조는 기존의 개정학칙 그대로 이며 (개정학칙참조) 제51조 (복학) 에서「병사휴학자는 제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는 개정내용을「다만 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수있다。병사휴학자는 제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고 확정했다。

또한 신설된 학사내규에 있어서도「병사휴학자는 제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복학하여야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대한 1년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할 수없는 자는 학적과에 복학원서를 제출한후 학칙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일반휴학·허가를 맡아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선수격려의 밤」 열려

總學주최 재학생과 공감대 이뤄

「선수격려의 밤」이 지난6일 오후5시반, 총학생회 체육부주최로 동국관 5층로비에서 열렸다。

본교 체육부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일반학생과의 일체감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있는 이행사는 금년의 경우, 교내의 제반사정으로 학기초에 열리지 못하고 이날 뒤늦게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3부에 걸쳐 격려사, 선물증정및 연회, 레크레이션 장기자랑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선수로단은 야구부의 김종우감독외 선수 35명, 축구부의 임창수코치외 선수24명 농구부의 김성덕코치외 선수 13명, 레슬링부의 배기열코치외 선수 19명, 복싱부의 김진영코치외 선수10명, 설상부선수5명, 빙상부선수 1명등 총1백10여명이었다。

慶州 학회연합회

긴급 대책회의 가져

慶州캠퍼스 학회연합회의「긴급대책회의」가 지난 3일 오후5시 12명의 학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연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각단대 운영위원회 활동방향 모색과 학회룸 설치등을 논의, 학회비 책정의 차질에서 초래된 보조비 지원문제와 학회장 장학금 액수문제만을 논의하고 현재 말썽이 되고있는 교련학점관계는 상호에 논란을 빚어 다음회의로 미루고 폐회됐다。

政外科동창회장학금

4명에게 80만원

政外科동창회 (회장=왕표순)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1일 兪光震(정외과) 교수 연구실에서 있었다。

학과의발전과 후학의 勉學정진 진작을 목적으로 모금되어 이날 전달된 同장학금은 각학년별 1명에게 20만원씩, 총4명에게 80만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이날 장학금전달식에는 同科동창회 朴洛源부회장과 金文煥사무국장이 배석했다。

이 장학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김태환(1年) ▲이용식(2年) ▲이현진(3年) ▲김진영(4년)

태백산맥 종주성공

慶州 배경호君

慶州캠퍼스 배경호(회계·2)군이「태백산맥 단독 종주 등반」에 성공했다。

이번등반은 분단조국의 평화통일 염원등을 고취시킨다는 각오아래 지난6월25일 부산 금정산을 출발하여 지난달 8월15일 설악산을 거쳐 태백산맥일원을 종주했다。

써클대표자 회의

12일 학생세미나실서

써클장회의가 써클연합회 (회장=장학균) 주최로 오는12일 오후5시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써클제행사계획및 2학기 써聯사업안, 써클장수련대회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된다。한편 써聯은 오는13일부터 1박2일간에 걸쳐 각써클장들을 대상으로 수련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文理大 운영위원회

회보조비문제 논의

慶州캠퍼스「文理大 운영위원회」가 지난4일 오후5時 황보종원(국문·3) 학생회장을 비롯 各학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리대 회보발간, 학회보조비 지급안여학생 교양강좌개최의 문제를 논의, 학회 보조비는 학년당 1만원, 회보발간은 年2回로 확정 했다。

慶州지구 高校長 간담회

우수학생 유치와 학교홍보 일환

「慶州·月城지역 高校長간담회」가 지난달29일 오전 11시 南都泳부총장을 비롯 이지역 高校長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관(舊인문관)에서 열렸다。

우수학생유치및 학교홍보 방안의 일환으로경주캠퍼스 설치이래 처음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소개와 함께 지역사회와 本대학간의 유대강화방안등이 논의되었다。또한 이날간담회에서는 지방대학문화의 역할에대한 토론회에 이어 慶州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공감대형성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商經學 원고모집

당선작에 상금15만원

한국상경학회(K·C·C)는 경상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동국대상경학논문발표대회」원고를 모집하고있다。

이번 주제는「엔高, 달러약세가 우리나라 수출에미치는 영향」및「기술발전과 국제수지개선」「경제발달과 소득분배」「자본자유화가 기업자본조달에 미치는영향」등으로 기간은 오는11월1일까지이며, 당선작에는 상금 15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논문발표는 오는11월13일 (장소미정)에 있을 예정이며, 논문접수시 내용요약서 (원고지 7~8매)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써클소식

▲유스호스텔=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리산에서 호스텔링을 가짐。

▲동국컴퓨터연구회 (DUCA)=오는 13·14일 양일간 청평에서 수련대회를 가짐。

▲경주캠퍼스 農硏및 고전극회=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제20회 신라문화제」에 참가, 시가행진및 공연。

복지사업수지내역 공개

학생처 순익 一部 장학금으로 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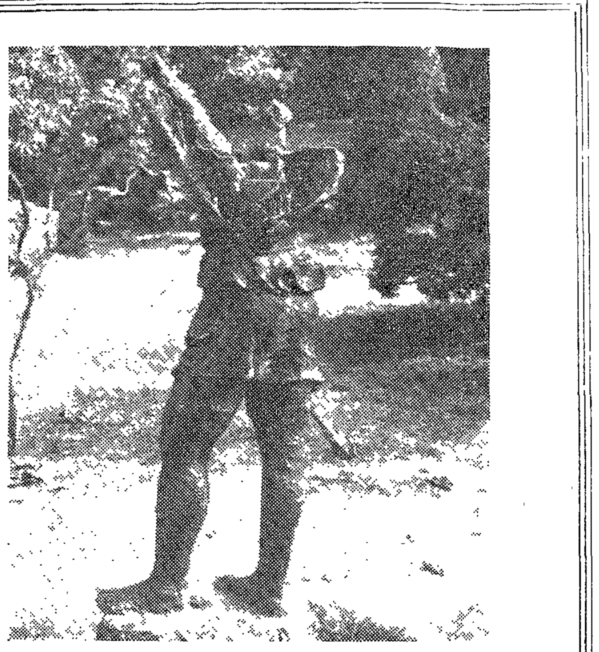
학교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8월말까지의 복지사업수지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당국의 압력으로 지난10월 자판기, 복사기등의 학생복지사업기구의 학교직영화이후 순이익금은 총2천6백79만2천5백50원으로 그 사용내역을보면 교비단기차입금 3천5백만원중2천만원을 상환했고, 6백79만2천5백30원의 잔액중 5백27만원을 8월말 결산시 각단대별 장학금으로 지급다다。

재원조달및 주요지출사항을 살펴보면 85년10월에교비단기차입금이 3천5백만원, 학생회인수액 1천2백7십여만원, 중고 복사기매도액 2백8십여만원으로, 자판기·복사기의 인수에 2천1백여만원, 복사기 구입에 2천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절단기·집기·비품·급료미지불등에 6백여만원의 돈이 지급되었다。

현재 운용기계와 운용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자판기는 총26대로서, 업자로부터 인수한것 12대, 총학에서3대, 신규구입한것 3대와임대한것 8대이며 복사기는 총16대로 4대를 새로 구입했다。운용위원은 기사10명과 근로학생30여명이 맡고있다。

한편, 복지사업은 지금까지 학생생활과에서 맡아 운영해 왔으나 2학기부터는 복지사업전담기구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메라 텃상

破 身

누가 왜 이랬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시간도 무상하지 한 예술인의 분신이 破身당한지 어언 3개월。따스한 손길이 그립다。

<글·사진=김영석記者>

慶州 써클등록 접수

10일까지 26개기존써클 포함

慶州캠퍼스「86학년도 2학기 써클 등록접수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되었다。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등록은 기존 26개 써클의 경우, 2학기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등을 제출해야하는데 서류미제출 써클은 계속활동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써클활동이 중단되게 된다。

한편, 신규써클의 경우는 실적보고서를제외한 나머지 서류만을 제출하면 된다。

녹차 강습회

전통茶禮 계승 위해

「녹차강습회」가 농과대 여학생회 주최로 오늘 오후5시 학생회관2층 연화원에서 있게된다。

농대 여학생들의 정서함양및 전통茶禮계승을 위해 열리는 이번 강습회에서는 녹차시음과 茶道에 대한 강연등이 있을 예정이다。

외국인과 共同 탐사

同探, 백룡동굴 조사

동굴탐험연구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백룡동굴, 고씨굴, 고수동굴, 노동굴등을 차례로 탐험했다。

오스트리아 동굴학자 시박사와 동행한 이번 탐험에서는 우리나라 동굴의 분포 및 현황을 주로 조사했다。

한편 同部는 오는11일부터 일본 관서학원대학탐험부팀과 동굴합동탐험을강원도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女學生 공개토론회

「性과 폭력」 주제로

총여학생회 주최「性과 폭력」주제의 공개토론회가 오늘 오후 3시 계산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물의를 빚고있는 성고문 사건과 지나친 상업주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성적 광고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農大 체육대회

14일 대운동장서

農科大 體育대회가 오는 14일 대운동장에서 농대학생회 주최로 열린다。

농대생들의 화합과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한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농구·씨름·줄다리기·계주등 5종목에 걸쳐 열리게 되는데 여학생들을 위한 족구경기도 있게 된다。

회전무대

시절이 하수상하니…이제 「너 자신을 알라」

大學의 主人은 누구입니까

○…학생들 스스로 大學의 주인임을 포기한 일이 뜻있는 學兄들을 우울하게하고 있다는데。

지난 4일 있었던 대의원총회에는 전체대의원중 불과 10%정도만이 참석해 代總이 무산된것은 물론이고 그 존립기반마저 휘청거리는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라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도 어려운 현상황에 스스로 주인이기를 거부한 學兄들께 本회 전부대구曰『민주주의는 결코 주체적인 참여의식없이는 이를 수가 없는 법이올시다요』

정치적 성숙도도 좀 보여주시죠

○…최근 정부당국자가『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학내의 모든 학생집회를 不容, 초기에 경찰을 학원내에 투입해 강제해산시키겠다』고 공언해 많은 학형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이방침은 최근 당국이 시내 각 대학의 학생집회 때마다 경찰을 학내에 투입함으로써 사실이 드러나고있는데, 아무리 아시안게임이 국위에 관계된 행사라하지만『민중생존권을 외면한 실속없는 행사』라는 학생들의주장에도 일단은 귀를 기울여야 하지않을까。

다시말해 왜이러한 주장이 당연시되어 떠도는지 깊이 성찰할 줄아는 정치적 성숙도를 먼저 보여주는게 국가장래를 위한 참정치가 아닐런지。

政治的 이슈와 학업은 별개(?)

○…요즈음 많은 學兄들 사이엔 아시안게임 기간중 과연 수업을 계속할수 있을런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

이러한 異見들은 최근 亞洲대회를 앞두고「학원내 소요에 강경대처하겠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대회기간중 휴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교수님들마저「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업을 강행하겠다」는 교무처의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표시하고있는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안타깝기만。

그러나 저러나 언제부터 신성한 상아탑이 정치적인 이슈때문에 수업여부를 학생들 스스로 예측하게 됐는지 시절이 하수상하니 우리들 마음도 난분분합니다요。

公人精神 좀 가지시죠

○…체제정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慶州캠퍼스에 욕설이 난무(?)해 뜻있는 學兄들의 빈축을 자아냈다고。

사연인즉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학회연합회등이 각회의 운영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으로 욕설논쟁(?)을 벌여 이를 지켜보는 뭇學兄들을 아연실색케 했다는것。

개교80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東國人의 발전을 기대하며 本회전부대구 한마디『소위 公人된 입장에계신 분께서 언변에 조심좀 하시죠。』

웃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우리반 이열이가
대구로 전학 간다고
마지막 인사 하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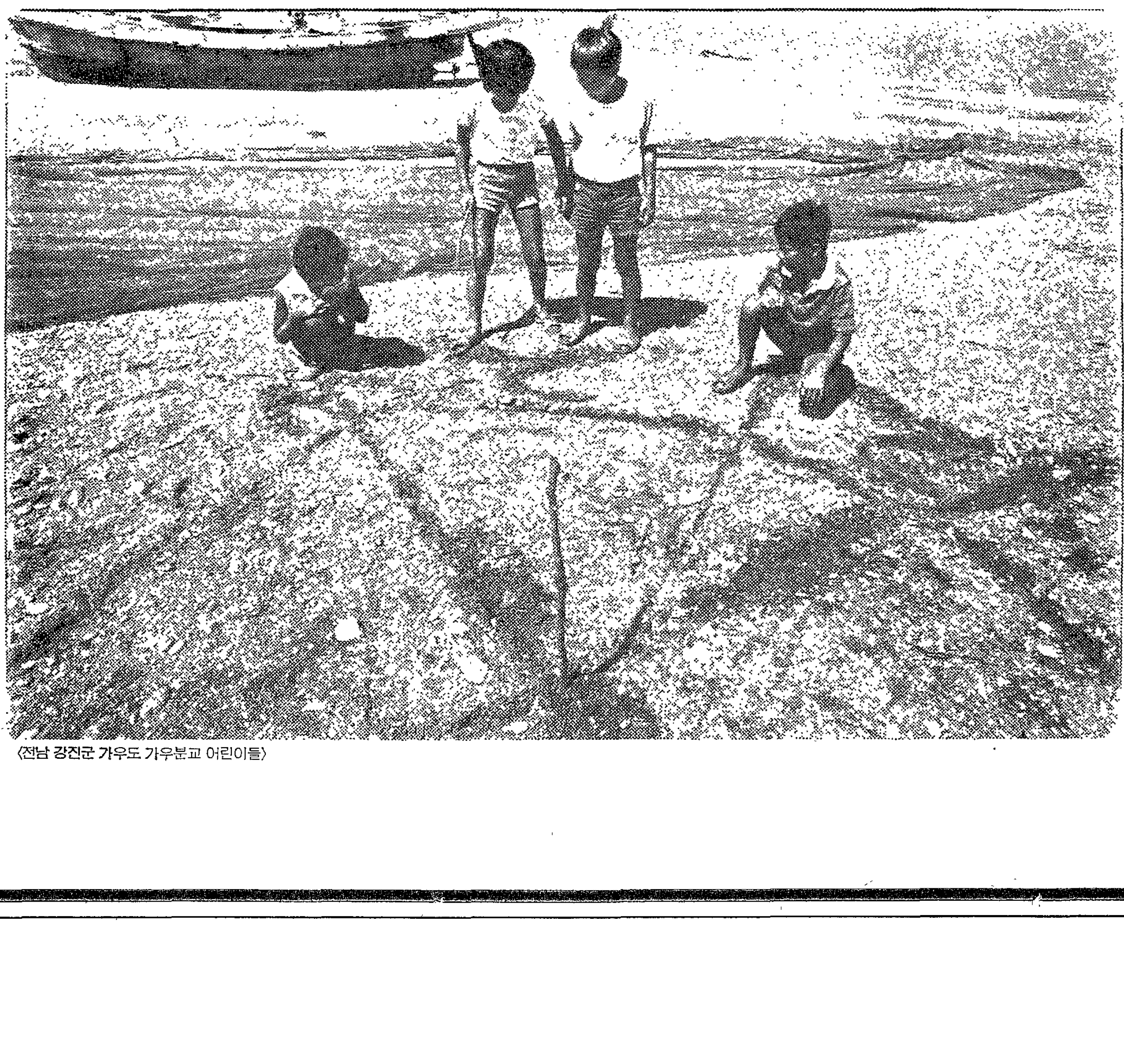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나왔다
참으려고 해도 안되었다

나를 보고
모두가 웃어만 댄다
남자가 가는데 여자가 운다고…

웃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그러자 남자들도 울고
여자친구들도 울었다

이열이도 울며 떠났다
선생님도 서운해 하셨다.



〈전남 강진군 가우도 가우분교 어린이들〉

산간벽촌, 외진 곳에서 순박한 마음과 아름다운 꿈을 잃지않고 굳굳히 자라나는 아이들. 코오롱은 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작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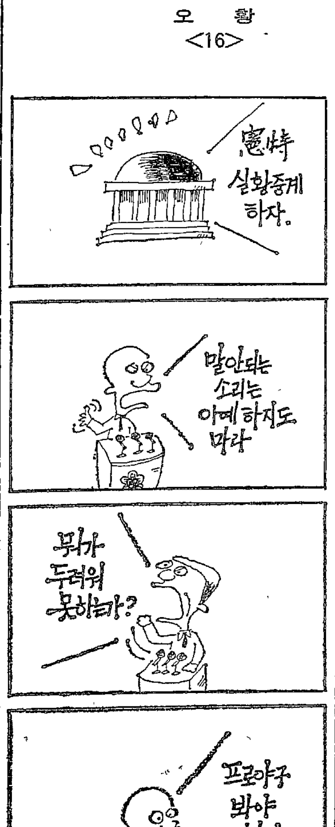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전학가던 날, 섭섭한 마음 때문에 기어코 눈물을 흘려버렸다는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
「웃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는 거짓없는 동심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이와같은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아이들이 산간벽촌, 외진 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순수한 눈물 속에 담겨있는 친구에 대한 우정, 그 소중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자라나는 아이들. 비록 이들에게는 도시 아이들처럼 효과적인 학습교재, 문화적인 환경은 부족할 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자연환경 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은 풍족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 아이들이 아름답고 고운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서 저 나름대로의 꿈과 재능을 키워가면서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났을 때 우리의 내일은 더한층 밝고 건강할 것입니다.
코오롱은 순박한 마음과 아름다운 꿈을 잃지않고 굳굳히 자라나는 이 어린이들의 작은 빛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전하는 조그마한 사랑이 그들의 꿈을 살찌우게 하고 용기를 북돋게 해서 훗날 그들이 마을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조국을 위해 무언가 꼭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주기를 기원하면서……

사랑을 투자하는 기업—
코오롱

여로니 ⑬

오 황

<16>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대학생들 당신이여!

국가의 장래를 어깨에 지고 있는 청년 당신이여 각성하시오。

국가의 장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 당신도 함께 각성하시오。소위 기성세대가 놓아 둔 덫에 걸려서「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법」이라고 우기는 얼빠진 친구。당신도 크게 각성 하소서!

나는 당신들의 언행이 같지 않다는데에 편견일는지 모르지만 몇마디 피력코자 합니다。

우선 당신들은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읍니다。당신들이 진정한 애국시민이라고 자부하며 익지도 않은 외국어를 외래어 대접에 맞추고 있으니 큰문제가 아니오。말끄리마다 영어・일어・불어・독어 나부랭이들이 오뉴월 머슴밥에 보리알처럼 많이 섞여있으니 듣는쪽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나이다。우리가 다같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을 여러분의 대화의 광장에 초대하여 듣게하거나 대학신문을 읽게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당신들은 세종대왕을 귀먹어리나 벙어리로 만든 장본인 입니다。

외국어를 대화 사이사이에 끼어 넣음으로써 교양이 철철 넘친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디 어린 착각 입니다。그야말로「착각할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기회 있을 때마다 애국애족이 당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주장하더니 이게 어인 일 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서 탈 입니다。밤낮없이 영어에 몰두하다 보니 이미 국어가 영어에 의하여 더럽혀져 있읍니다。대화나 문장속에서 심심찮게 인용되어도 좋은 우리 싯귀는 찾아 볼 수 없고 영어 문법서에 있는 말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작태가 한심스럽게 많다는 사실이 분통터지게합니다。

여러분의 레포트를 읽어보면 또 한번 영어에 오염된 사실을 직감할 수 있읍니다。창조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고심참담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여겨지나 문장하나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이 두세개씩 포함되어 있읍니다。그 까닭에 문장이 맥없이 만연체로 길어지고 있읍니다。또한 우리말에는 있지도 않는 수동태 문장을 구사해 놓고도 태연자약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아마 세익스피어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감사장이라도 들고 달려올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또한 당신들은 은어・속어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읍니다。은어란 사전에서는「어떤 계급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특수 언어。그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움, 각종 집단에 따라 의태어, 의성어, 전도어, 생략어, 형용어로 그 발생을 나눌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읍니다。이와 같은 은어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은어란 대체로 표현기법의 기발성 빼놓고는 내용적으로 비속하기 짝이없고 마치 유행가처럼 불꽃같이 타 올랐다가 미구에 속절없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지나친 선민의식의 표출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감정적 언사일까요?

앞에서 나열한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과 창도에 앞장서야할 TV가 오히려 그것을 좀먹게 하고 있읍니다。

문화의 달 10월에는 자기들만이 국어를 사랑하는 것처럼 캠페인을 벌인다。공로자를 수상한다 어쩐다 떠들어 대지만 10월이 가면 본성이 드러 납니다。프로그램 이름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국어를 천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읍니다。「뉴스・파노라마」「가요 톱・텐」「유쾌한 스튜디오」「스포츠 하이라이트」「팝・페스티벌」TV는 병만주고 약은 거의 챙기지 않는 돌팔이입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변화나 혁신에 감탄할 겨를도 없이 또다른 문물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미쳐 소화할 경황조차 없읍니다。

과거 몇백년 걸리는 것이 현재는 몇시간으로 단축하게 되었읍니다。따라서 그 변화 또는 혁신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면서 문물의 수용에 필요한 말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혹자는 지구인은 다 한가족인데 지리적 공간이나 민족이란 개념은 향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강변할는지 모르겠으나 한때는 피를 같이 흘리던 선린관계라도 국가 이익앞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문화적으로 예속되어 가다간 언젠가는 더 큰 불행을 자초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따라서 우리 것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당신들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우리말은 정화하고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너 자신을 알라」는 이때 쓰이는 말인듯 합니다。

영어의 홍수는 세익스피어에게 감사장이라도 들고오게 할지…

이 주 희 〈작가〉

메아리

▲카운트다운11 민족의대제전(?) 86아시안게임을 향한 본격적인 秒읽기가 시작됐다。印尼선수단을 필두로 각국의선수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다。바야흐로 스포츠 큰잔치의 前夜, 온통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분이다。86・88올림픽을 유치한 이래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不撤晝夜로 노력해 왔다。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정성껏 외국손님을 모시자는 취지로 준비해 왔고,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한 33개 경기장, 호텔등의 숙박업소, 관광, 교통, 환경미화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또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1만6천여 자원봉사대가 대기하고 있고, 수개월간의 고된 강제 연습끝에 1천여 女高生들도 매스게임의 마지막 연습을 마무리짓고 이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자랑스럽게 종합2위의 그 날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슬그머니「속된(?) 타산」이 고개를 든다。신성한 스포츠에 쩨쩨하게 돈 이야기냐고 꼬집을지도 모른다。그러나 86・88올림픽을 겨냥한 그 많은 시설투자와 사업들이 어떻게, 어떤돈으로 가능한지 어린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없는 것이다。하기사 지난날 某장관의 변명을 들으면 조금

팔유 팔파

은 이해가 갈것도 같다。『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손님을 지나치게 접대하는 경향이 있고 잔치를 위해서는 빚까지 지는 사람도 많다。이것이 한국인의 약점이다。』▲하지만 이해못할 부분은 여전히 남는다。대회기간중 매연・공해가 심한 업체는 임시 조업을 중단시킬 검토가 있다는데, 도대체 外債가 5백억달러가 넘고, 만성적 경기불황과 실업, 저임금으로 배고픈 노동자가 허다한 나라에서 조업중단까지 하며 잔치를 벌여 잘보이려 한다니, 아무리 흥이나는 잔치고 손님접대를 잘 해야 한다지만 이건 主客이 顚倒돼도 유만부동이다。진정한 86・88의 내포된 의미가 뭔지, 참으로 답답한 맘으로 어느詩人의 말을 인용하여 되씹어 본다。

▲…얘야팔유팔파오림픽이열리며는우리덜은뭐시그리좋다냐소값이나쌀값이나객지서노동일하는니동생임금이라도올라간다냐(중략)그나저나오림픽이끝나며는저텔레비전속사람들이나윈갖치사와축사속의사람덜은무신소리로안정된선진조국과정의복지를위하여침을튀길까그러고우리덜은무신재미로살끄나무신희망으로와와절망하끄나해가떠도오림픽달이떠도오림픽빛이저도오림픽소값개값되야도오림픽죽으나사나오림픽인디아아아아아그때는참말이제무신절망으로아아대한민국아아대한민국허여무신재미로살끄나… <勝>

이달의 詩

은유적 언어구사로 向日性 느껴 일상속 眞實의 가치를 재조명해

◇비오는날

<소설문학 9월호>

——◇——

朴 鎭 煥 作

전철
성내역
무인무료 서어비스 쎈터
비오는 날
우산 빌려주기
物神物神
썩어가는 세상에

物神物神
썩은 비는 내리고
우산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들 가슴은
비에 젖는다。

궂은 장마비가
무시로 내리는
칠월 어느날
비를 피하기 위해
성내역
무료무인 센터에서
나도 우산 하나를 골라 펼친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우산속 동행이다。
그것은 무인무료 센터에
아무도 없으면서
누군가가 있음과 같은 이치이다。
物神物神내리는 비에도
젖지 않는 그 분

비오는 날
젖지 않는 분과 만난
가슴은
비아닌 다른 것에
젖는다。

어느 의미에서는 시적감동이나 진실은 심오한 환상의 세계 표상보다도 평범한 주제와 소재에서 리얼리티한 진실과 가치를 발견했을때 우리는 시의 진실과 감동을 더 느끼게 된다。

그 진실과 감동은 시인이나 읽는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와 모든 사물의 현상 상황의식을 확인하고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되며 결과가 된다。평범하고 단순한 사상(事象) 속에 숨어있는 소재를 관조하며 발굴하여 강한 이미지와 감성으로 철학과 사상이 있는 시세계를 창출해 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類의 시에서 언어의 무의미한 나열과 현학성의 등장, 그리고 안이한 이미지의 표상에다 주제 전개의 조잡성을 많이 볼 수있다。그런 한갓 노래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넋두리의 시가 시의 의미성을 지닐 수없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이런 말들을 전제로해서「小說文學」9월호에 발표된 朴鎭煥의 작품「비오는 날」은 음미해볼만한 작품이다。

뜻있는 시인의 사물에대한 감각과 시점(視點)은 평범, 단순한 소재속에서 예리한 감성으로 작동한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면서 그 쏟아지는 비를「모멘트」로하여 자기의 이미지와 상황을 상관시켜 표상화 시킨것이다。그는 이작품에서 비를 낭만이나 감상의 점경으로 보지않고 축축하고 흐리고 어두운 감성으로 부조리하고 부패한 현실의 치부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비내리는 성내역에서 그사람의 생각은 그 비가 한갓 감상과 낭만의 비로 비치지않았고「물씬물씬 썩어가는 세상에 물씬물씬 썩은 비는 내리고」있다고 보았다。그리고 그썩은 비는 우산으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가슴은 비에 젖고있는 현실이다。

현실과 상황의 각박함과 불합리와 부패는 만연되어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다。이語辭에서 리얼리티한 감성과 감동을 받게된다。은유적인 언어구사로 현실에대한 관심과 생각을 주지적 서정으로 잘 나타내고있다。

시는 사물 상황을 관조하고 표상할 뿐이고 사물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하는 작업이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시인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그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고 표상함으로써 그 본령의 일부를 다했다고도 볼 수있다。

각박한 현실의 삶과 그늘진 실상은 나혼자만이 생각하고 가슴속에 젖어있는 슬픔이나 아픔이 아니다。「아무도 없는데/누군가가 우산속동행이다」가 그 실상인 것이다。

현실과 삶은 우리 인생에있어 명암(明暗)이 있다시피 각박하고 그늘진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현실도 있다。그런 이원적인 실상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되겠고, 마음속에 젖은 한탄을 털어놓은것과 같은 것이다。

이작품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잔잔한 마음속에서도 사물을 보는 감성이나 내재율을 강하게느낄수 있으며 語勢나 語辭뒤에도 사린 내용의 간결성이나 조화성을 엿볼수가 있다。어둡고 축축한 소재에 비해 우리들 마음이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계시와 섭리로 향하게하고 시적 향일성(向日性)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은 확실히 어떤 감동과 진실을 동반하고 있기때문이다。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은 항상 일상성 철학을 체득하고 발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것을 깊이 새겨야만한다。

鄭 奉 來

<등문・문학평론가>

文化短信

「창작동국」원고모집

내달 25일까지 동국문화회에서

동국문화회에서는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창작동국」창간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한다。모집부문은 시・수필・희곡・소설・평론등이며 기간은 내달 25일까지 동국문화회실(학생회관5층)에서 받고 있다。

「히바쿠샤」공연

바탕골 소극장에서 오는14일까지

극단 떼아뜨로 무에서는 反核연극「히바쿠샤」를 14일까지 바탕골 소극장(동숭동) 무대에 올린다。공연시간은 하오4시30분, 7시30분 하루 2회공연이다。

「덜미」공연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오는13일까지

극단 거론은 두번째 작품「덜미」를 문예회관소극장(동숭동) 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하오4시30분, 7시30분 하루2회 공연이다。

민중恨 끈기있게 표현한 한마당

——「아리랑」공연을 보고

연극평

연극「아리랑」은 1920년대의 일제 압박속에 나운규가 만든 민족영화「아리랑」을 각색, 극단「아리랑」이 창단 기념으로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이 연극은 광대 김불출과 배우 지망생 박달재가 옛날 연극인 아리랑의 연습과정중에 제기되는 의문과 답변의 연속적인 대화형식으로 진행된다。

연극 배우 지망생인 박달재는 연습중에 극중인물 영진의 부친과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흡사한 점등에 이끌리어 연극에 흡수된다。광대 김불출은 부인의 죽음과 일제압박으로 인해 정절을 잃고 숨진 영진의 애인 지숙과의 유사점을 돌이키며 그 슬픔을 참다운 예술로 승화시킨다。

연습을 마친 두 광대는 이웃의 불행을 외면한 예술은 순수라는 가면을 쓴 것임을 깨닫고, 불행한 세태를 비판할 수 있는 용감한 광대가 되고자 결심한다。

연극속에 다뤄지는 또하나의 연극,「아리랑」은「고양이가 개를 잡아 먹는다」라는 독립쟁취의 상징적 주제를 시종일관 다루고 있는데, 주제음악으로 다뤄지는 우리의 전통민요「아리랑」또한 민중의 한을 애절하며 끈기있게 표현해 주어 관객과 배우간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다。

일제의 모진 고문끝에 미치광이가 된 최영진을 통해 민족적의식을 그린「아리랑」연극과 그 연극을 연습중에 시대적 고뇌를 그려내고자 노력하는 두 광대와의 이중적 구조속에서 관객은 일제시대와 현실을 왕래하며 연극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압박받는 민중적 삶의 표현이었던「아리랑」연극을 60년이 지나간 지금에 다시 공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게는 광대의 이야기를, 크게는 민중의 이야기를 다룬「아리랑」은 연출자의 말대로 시대의 아픔을 통시적 아픔으로 승화시키는 광대의 고달픈 발돋움이 아닌가 한다。

<문화부>

바람으로 만든 조약돌

李炯基 著

새책안내

한국대표지성 자선 에세이중 하나로 본교 이형기(국문과) 교수의 산문집이「바람으로 만든 조약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제1부「어리석은 자의 모래성」등 총5부로 나뉘어 모은 이번 산문집은「문학행위」하는동안 느낀 생활철학을 진술한 언어로 엮어내고 있다。

<어문각刊・328面・3,000원>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Ⅰ, Ⅱ

김대환・윤진호譯

종속학파의 주도적 이론가인 사미르 아민의 이 책은 자본축적에 있어 선진국과는 다른 역사적 경로와 거기서 유추되는 또다른 발전경로를 총5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주체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두 옮긴이는 밝히고 있다。

<한길사刊・700面・8,300원>

미래의 충격

張乙炳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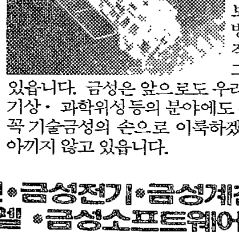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 인간 소유의 생산품, 머물고 지나치는 장소와단체들속에서 갑작스레 당하는 변화는 과연 어떤 현상을 빚어낼까를 관심있게 다루고있다。여기서 저자 앨빈 토플러는그 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이론제시에 그치지 않고 그 해결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범우사刊・420面・4,000원>

인공위성을 통한 정확한 정보로
어디에서나 풍요로움을 얻는다.

통신위성으로 세계를 하나로 이어 모두가 편리하게 살고, 자원탐사위성으로 깊은 땅속과 바다속의 자원도 쉽게 찾아내 모두가 풍요롭게 살수 있으며, 기상위성으로 날씨를 정확히 예측해 모두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사회 — 통신・자원탐사・기상・과학등의 인공위성은 국경과 인종과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고도 정보화사회로 안내합니다.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더욱 인간답게—— 이것이 바로 금성의 첨단 인공위성기술로 이룩하려는 테크노피아 세계입니다.

高度情報化社會를 앞당기는
金星의 尖端 人工衛星技術



금성은 이미 금산지구국건설에의 참여와 함께 인공위성발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밀전자 유도기술,컴퓨터・통신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또한 방송위성을 통해 방송국 프로그램을 직접 수신・시청할 수 있는 직접위성방송 수신시스템을 개발해 수출, 그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읍니다. 금성은 앞으로도 우리 인류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자원탐사・기상・과학위성 등의 분야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인공위성 시대는 꼭 기술금성의 손으로 이룩하겠다는 의지로 오늘도 연구소에서 땀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금성 •금성사 •금성전선 •금성통신 •금성전기 •금성계전 •금성정밀 •금성반도체 •금성알프스전자 •금성하니웰 •금성소프트웨어 •금성마그네테크